

케루빔 총서 제9권

성경의 사람 이야기

김명호 저

케 루 빔

케루빔 총서 제9권

성경의 사람 이야기

김명호 저

1999

케 루 빔

KERUBIM SERIES 9

*The Stories of the
Men and Women
in the Bible*

by

Myung Ho Kim

1999

KERUBIM

발행사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란 것도 막연한 이론이나 교리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시(例示)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수놓여 있고,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예증(例證)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김명호(金明浩) 목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포착하고, 그것을 지상 강의(紙上講義)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일찍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의 교수로 수년간 봉사한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마운틴 뷰(Mountain View) 한인 교회를 담임하면서 신학적 논고(論考)를 많이 쓰고 있다.

저자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지배(紙背)를 철(徹)하는 혜안(慧眼)에 비친 깊은 진리를 많은 독자들도 터득하고 기뻐할 것을 믿으면서 이 책을 펴낸다.

1999년 10월 22일

케루빔 지도교수 남대극

책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뉴스타트(*NEWSTART*) 지(誌)가 창간될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여, “성경의 사람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와 동시에 뉴스타트 지를 펴내는 한국생명운동본부에 감사한다. 또한 지금까지 29회 연재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삼육대학교의 케루빔(Kerubim)에서 이 글을 책으로 엮어 펴내게 된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글이 책으로 출판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상의 사람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때로는 긍정적 측면으로, 때로는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낸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범죄의 이야기와 속죄의 이야기,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내용들이며, 성경에 선별되어 기록된 이런 삶의 현실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상의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장(行狀)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찾아보려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보았다. 독자들 중에는 필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읽으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필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한 내용들을 통하여 독자들이 나름대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자들께서는 이 글에 연유하여 더 좋은 사상을 도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신성(神性)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가족의 하나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이야기로 적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매우 감사한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 이야기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독자의 삶에서도 영글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편집하는 일에 큰 수고를 해준 삼육대학교 부설 신학연구소의 김정태(金正泰) 형제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미국 산 호세(San Jose) 일우에서

김 명 호

목 차

발행사 / 3

책머리에 / 4

1. 있는 것과 없는 것 / 9

2. 기독교의 맹점 하나 / 15

3. 먹어라! 먹지 말라! / 22

4. 남자와 여자 / 29

5.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 38

6. 결혼 / 49

7. 가인과 아벨 / 58

8. 성경의 족보 / 68

9. 노아와 그 시대 / 79

10. 홍수 / 89

1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 99

12.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 108

13. 성경의 연대 / 117

- 14. 니므롯 / 126
- 15. 바벨탑 사건 / 134
- 16. 한자에 형상화된 창세기 / 142
- 17. 아브라함 / 152
- 18. 소돔과 고모라 / 160
- 19. 롯 / 166
- 20. 이삭 / 173

- 21. 성경의 사람 이름들 / 181
- 22. 야곱과 에서 / 188
- 23. 욥 / 196
- 24. 라헬과 레아 / 206
- 25. 우물가의 로맨스 / 217
- 26. 이스라엘 / 227
- 27. 야곱의 아들들 / 237
- 28. 요셉의 환난 / 247
- 29. 유다의 자손 / 255
- 30. 유다의 변신 / 264

1

인간과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큰 종교에서부터 무속(巫俗)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들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켐(Durkheim)의 말이 아니라도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라서 종교를 떠나서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항의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 중에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큰 종교들은 거의 틀림없이 도덕적 종교이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여 사람들을 선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존

제가 되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보니 종교와 일반 도덕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만일 종교가 내세(來世)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교를 종교로 분류하지 않는다.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 삼대 세계적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는 한결 같이 내세를 중요시한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그들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 혹은 극락과 지옥, 또는 윤회되는 내세를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현세의 고생스러운 삶도 지긋지긋한데, 내세에서 또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하고 행복과 평안 중에 살 수 있는 내세를 위하여 종교를 택하고 죄를 속하며 도덕성을 함양하고 적선(積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내세의 보상이나 형벌과 관계없이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상한 일이 아닐까?

인간의 약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면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종교를 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나친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發露)가 아니겠는가?

종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영원하다고 보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다. “사람은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중에 영원히 있

1. 있는 것과 없는 것

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영원히 있다”는 논리라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상을 가르친다.

태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自存者]이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를 있게 한 그 존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자존자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自存者]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있게 된 원천적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를 있게 한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있게 된 근거를 없애는 것이니까 필경 자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증언한다(시 66:1-4; 100:1; 148:1-14). 만물이 그 존재의 원천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들이 죄를 온전히 도덕성에서만 찾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도 그런 경향으로 이어져 왔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말하기 전에 죽음을 말한다(창 2:16, 17). 그 후에 이 죽음의 성질이 죄라고 가르친다(창 4:4-7; 3:19 참고).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hattā't*)”라 하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hamartia*)”라고 한다. 이 말들은 다같이 “화살이 과녁을 빗나간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지닌 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목표(과녁)를 정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녁을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살도록 계획된 사람의 생애의 목표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되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마르티아”나 “하타트”는 정확하게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죄는 사람들의 죽은 상태를 가르치므로 도덕적 죄들은 이 죽은 존재들의 썩는 모습에 불과하다(엡 4:18-22).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간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창 2:7).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인데, 그 죽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곧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인 의는 생명이고 생명은 있는 것을 뜻한다. 신약의 로마서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

1. 있는 것과 없는 것

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도덕과 성경의 복음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다. 복음은 가장 고상한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존재와 생명의 실상에 대한 기별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도덕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실상에 대한 진정한 기별은 잊어버린 것 같이 도덕 위주의 강론을 펴고 있는 인상이다.

도덕은, 죄를 지어서 근본적으로 사망과 무(無)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없어지게 되는 동안 선하게 살아보자고 권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죄된 인간들이지만, 인간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밝고 안전하게 지내보자는 교훈인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로, 존재의 원천적 근원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지옥의 고통을 주는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소개되며,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생명의 본질적 성질인 사랑의 하나님을 곡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도 도덕도 다 잃어버린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얼마나 딱했으면 기독교 공해론까지 나오겠는가? 짧은 지면에 모든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적을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성경 복음의 요지가 생명과 존재의 기별인 것은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도덕 종교에서 생명의 종교로 구원을 받아

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이 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 도덕적 모범가만이 아니시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지 도덕 교본이 아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것이며, 성화의 의미를 알아서 체험하게 될 것이며,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2

기독교의 맹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먹지 않으면 죽을 존재로 창조하시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즉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먹어서 죽음이 온 것이다(창 2:17). 만일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은 오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먹어서 죽음이 왔지 먹지 않아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꼭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각종 실과 나무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

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네 가지 기능(技能)을 주셨다. 하나는 정서(情緒)이다. 혹은 욕망(慾望)이라 해도 좋다. 즉 하고자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 나무를 만드셨다(창 2:9, 10). 즉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성질,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성질들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되 살 재미가 있도록 하시고 재미있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역시 하고자 하는 성질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생육할 때에 그냥 생산만 하도록 하시지 않고 성생활에 쾌미(快美)를 주셔서 즐겁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먹지 않고 살 수 있을지라도 좋은 것을 먹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는 능력이다. 즉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할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농사하는 능력, 즉 농작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창 1:28; 2:15).

하나는 자유이다. 하고자하는 마음도 간절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정말 죽음보다 혹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안에 실과를 마음대로 [任意로] 먹어라(창 2:26)고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선악과 외에는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자유

를 주신 것이다. 하필 먹는 것뿐만 아니겠지만.

마지막 하나는 보장(保障)이다. 이런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앞에 주신 세 가지 기능을 다 소멸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왜 소멸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사람에게 정서와 지성과 의지를 주셨다는 말이다. 즉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다. 인격자는 그 인격에 의하여 행위를 산출하고 산출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시며, 프로그램 된 상태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자기 인격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스스로 받든지 거절 하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면 그는 창조되기 전 상태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창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사람이 흠으로 창조되었으니 창조되기 이전 상태는 흠이 아닌가? 죽는다는 말은

창조되기 이전 상태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명령을 주신 이유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결정이고, 그 결과는 세 가지 기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선택과 보장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주를 허락하시고 사람에게 원래 창조된 상태대로 회복시킬 약속과 함께 죽은 사람의 생명을 유예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건강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다.

건강의 첫째 길은 먹는 일이다. 처음 사람이 먹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먹을 것 중에 먹고 죽을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먹고 죽지 않을 먹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식을 하도록 간청하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9-11). 이것은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떡이 필요한 자에게 돌을 주는 자는 사단이다(마 4:3).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

2. 기독교의 맹점 하나

람들이 사단이 준 죽을 것들을 먹을 것들로 생각하고 먹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온통 병동(病棟)이고 인류는 모두 환자이다. 아무거나 먹는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죽음을 다시 확실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하매 버릴 것이 없다(딤후 4:4)고 말하면서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직하게 자세히 읽으면 그런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식물(食物)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3-5). 여기 말하는 식물(食物)은 식물(植物)이 아니고 음식물을 뜻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아무 것이나 사람이 먹도록 하시지 않고 사람이 먹을 것을 따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食物)이 되리라”(창 1:29)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이다. 그래서 식물(食物)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단언해서 말한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식물로 지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알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식물로 지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 구별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말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 놓았다.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는 이 기별을 무시한다.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산물인 것처럼 가르친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구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목사님들은 심방할 때마다 과식을 하여 병을 자초한다. 그러면서 살라고 먹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준 식물보다 하나님이 먹지 않기를 바라고 사단이 먹으라고 충동하는 돌 같은 것들을 더 즐겨 먹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召天)했다고 부고(訃告)를 낸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의 맹점이다.

음식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 생명과 선악과 이야기가 다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님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셔서 먹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먹는 것에는 복음이 없고 까다로운 율법주의만 있다는 말인가? 참 무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한가지 점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나 있음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 떠난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이다. 아무리 한 가지 만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특히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음식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보니,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쇠약해져서 결국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바르게 먹으라는 성경의 복음 진리를 전하면 율법주의라고 타박을 준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은 진리이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어릴 때 음식 투정을 부리며 잘 먹지 않으려고 할 때에 “먹어라. 먹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이것은 진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않도록 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깨끗하니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태초에 사단이 여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되며 우리의 살과 피와 뼈를 죽을 것으로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음식물의 생명 기별을 듣는 귀를 가지자. 거기에 밝히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분명히 읽는 눈을 가지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행사하자. 기독교가 이런 맹점에서 속히 탈출하기를 바란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청하신다.

3

먹어라!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 2:7). 이렇게 생령이 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과일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 17). 이 명령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인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다. 아마 여자에게는 그가 만들어진 후에 아담이 이 말을 처음으로 여자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물론 훗날 하나님

3. 먹어라! 먹지 말라!

게서도 여자에게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존재들을 낳아 줄 능력과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에는 생명과 사망의 기별이 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 있는 존재들을 낳아 줄 능력과 책임이 있는 아담에게 주신, 아담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그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모든 존재들을 자신 안에서 잘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요 명령인 것이다.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로 잘 보존하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 넣어 산 존재가 된 고상한 인격체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면서 그의 생명을 이어주는 능력과 책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명령인 것이다.

최초의 종교와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다. 성경의 종교와 신앙은 생명과 존재에 있다.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그 주신 상태로 잘 보존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종교요 신앙이다.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게 주어졌는가? “먹어라, 먹지 말라”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교요 신앙의 내용이었다. “좋은 빵 한 덩어리에는 실천적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식사와 음식물에 관한 권면, 288). “좋은 요리에는 그대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는 어떠한 생각보다도 더욱 많은 종교가 있다”(상동, 296). “좋은

요리에 종교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모르고 너무도 부주의하여 요리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의심스럽다”(상동, 306)라는 말들은 창세기 2:16, 17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된 이야기들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와 그 신앙을 파괴하는 것인 줄 잘 안 사단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다. 그 결과 아담이 그 과실을 먹었을 때 이 세상에 사단의 종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종교는 **정녕 죽는** 고통과 사망의 종교이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순한 종교적 명령을 신앙하고 지켰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망이 이르지 않았을 것은 틀림없다. 성경에 계시된 사실에 의하면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存在]과 없게 되는 것[非存在]이 먹는 것에서 판가름난 것이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완전한 생명의 자녀들로 땅에 충만하게 하는 능력과 책임과 축복을 주셨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아담 자신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주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담 자신이 사망과 비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생명의 자녀들도 몽땅 비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잃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으려는 마음이 있

3. 먹어라! 먹지 말라!

거든 하나님이야 어떠하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린 그 존재와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위치를 대신하여, 아담 대신 죽고, 자신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존재와 생명을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다시 찾아주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죽어 없어지지 않고 역사를 따라 존속하며,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행복한 영생의 삶은 아니었다.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회는 언젠가 한번 죽는 조건으로 주어졌으나, 죽을 존재일지라도 생육과 번성이 계속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때가 왔을 때(갈 4:4)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같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과 비존재의 사단의 종교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존재를 바른 상태로 영원히 있게 하는, 구원의 공중 봉사를 시작하실 즈음에, 태초에 아담에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교와 그 신앙을 버리게 하는데 성공한 사단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 시험의 광야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인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가 “먹어라, 먹지 말라”는 데서 시작된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이런 사단의 주장이 처음 받아들여진 후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사단의 종교에 깊이 빠져 식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배(腹)로 그 하나님을 삼고”(빌 3:19, 구역),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神)은 배(腹)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3:18, 19). 정말 오늘날 세상에 배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 사람 아담은 먹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이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예수께서 이런 승리를 통하여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 승리에는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건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부연(敷衍)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을 주신 것은 그에게 이 지구의 생명 있는 존재들의 생육과 번성을 맡겼기 때문이다. 아담이 이 명령을 지켰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망이 이르지 않았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도가 확립되

3. 먹어라! 먹지 말라!

어 있다.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하여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과 존재를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할 책임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과 존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린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생명과 존재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장을 달리하여 이야기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대로 먹고 마시면 그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 마시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는 먹고 마시는데 달려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이다. 우리는 먹고 죽는 음식에 매달리지 말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48, 53-55).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육신의 양식에 대한 것도 계시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요리와 음식에는 종교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그곳에 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거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무상한 존재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남자와 여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아버지라는 칭호만 써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영국 감리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을 교단에서 허용한 최초의 교단이 되었다고 **한국일보**는 런던 발 UPI 보도로 1992년 7월 3일자 신문에 보도하였다.

요즘은 미국 CRC 교단이 이 문제와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고, 이런 일로 CRC에 소속된 여러 한국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형성한 사실도 보도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제시해 주는 성경에 의하여 이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태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비로소 있게 되었다. 그런데 비로소 있게 된 사람은 그 수가 하나뿐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다(창 2:19).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아담은 그야말로 최초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이 **남자**이다. 이 **남자**가 있게 되었을 때에 아직도 **여자**는 없었다.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상관없이 한 다른 사람을 여자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배필로 주시지 않으셨다. 이 아담에게서 그의 배필을 취하여 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아담이 남자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창 2:21-23).

남성 곧 남자는 그 존재에 있어서 여성 곧 여자보다 먼저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존재이다. 그 이전에 이 지구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남자에 의하여 존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곧 남자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

리라”고 여자를 정의하였다.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남자에 의하여 정의된 존재이다.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도 없다. 이 글을 읽는 여성들이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창 2:7). 그러나 여자의 창조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없다. 다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아도 여자는 산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여자를 산 존재가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미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여자에게 불어넣으실 필요 없이 아담에게서 여자에게로 전해졌다는 말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기능을 부여하신 것을 뜻하는 사건이다.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기능을 맡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생명과 형체는 아담에게서 취하여 낸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은 다음 장에 이야기할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생명을 낳아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곧 남자는 생명을 낳아주는 기능을 가진 자이다.

여자는 남자가 낳아준 생명을 산 상태로 잘 기르는 양육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고전 11:8)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이 몸이 사라사랴.

하늘같은 은덕을 어데 다혀 갚사오리.”

라는 정철(鄭徹)의 시조(時調)는 “낳다”는 말의 뜻을 잘 간추려주고 있다. 그것은 형체와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이것을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형상이 있고 “나”라는 생명체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말은 “나의 형상과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아주는 것은 남성 곧 아버지이다. 그리고 그 남성이 낳아준 생명을 기르는 것이 여성 곧 어머니이다. 물론 미생물 세계의 일을 가지고 따지면 이 논리는 막힐는지 모른다. 그러나 고등 생물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진리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가? 어머니이신가? 성경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

4. 남자와 여자

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민 16:22; 27:16)이시고 “생명의 원천”(시 36:9)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셔야 한다. 사람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이루고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부계 사회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에 의하여 그렇게 계시된 것이다. 문화사적으로 모계 사회 시대가 부계 사회 시대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 게서 여자를 나게 하신 후에 이 둘을 결혼시키셨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결혼 주례사를 통하여 다음의 권리를 선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요 여자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어머니가 된다.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왔고 성장이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남성인 아버지로 계시된 것은 성경의 계시 윤리로는 너무나 당연하다. 아무리 여권(女權)이 신장(伸張)된다 하더라도 여자가 생명의 씨를 낳을 수가 없고 남자가 그 씨를 받아 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각각 창조 때부터 부여받은 자

기의 기능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인권을 바르게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으로 여권이 신장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칭호는 단순히 어떤 권리를 높이기 위한 칭호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와 관계된 원천적인 칭호인 것이다. 남자 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태초에 남성을 여자라고 부르고 여성을 남자라고 불렀다면 여자라 불린 남성이 어머니라 불렸을는지 모르고 남자라 불린 여성이 아버지라 불렸을는지 모른다. 그랬다면 오늘날 여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는 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기능의 성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는 계시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갈 4:26). 하늘의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이다. 이미 말한 것같이 어머니는 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新婦)로 계시되었다(계 21:9, 10). 그러므로 지상에 두신 교회의 원형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하나님을 생명의 시여자(施與者)인 아버지로 계시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계시하고 그의 교회를 아내로 계시한다(엡 5:22-3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은 그의 아내인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4. 남자와 여자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의 차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고 산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게 하며, 이것이 또한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권리요 책임이며 또한 영광인 것이다.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할 때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며 차별이 아니라 진정한 동등이 성취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그것은 태초부터 기능의 구별이 뚜렷하고 그 주어진 각각의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인격의 동등성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계획되어진 존재들이다. 생명은 남자로부터 온다. 그것을 받아서 형상을 이루어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여자의 영광스러운 권리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잘 설명하여 주시므로 가정이 구원과 복음의 진정한 해석장(解釋場)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님 같고, 아내는 충성스러운 교회 같아야 한다. 사람 아내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남편에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또한 사람 남편이 아내의 모든 봉사과 자녀 양육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의 참 형상을 보게 해야 한다.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답고 어머니는 하늘 새 예루살렘다워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늘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 가정 그 자체가 복음의 실천장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것이며, 사회와 국가는 행복

할 것이다. 오늘날은 아버지는 아버지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이기를 포기하고, 남편은 남편이기를 포기하고 아내는 아내이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이기를 포기하여 청소년 문제는 날마다 더욱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복음은 좀먹고 신앙은 변질되며 가정은 파괴되고,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그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파멸로 치닫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혼은 다반사(茶飯事)가 되고 자녀들은 방치 유기되며 폭력과 살인이 종횡 무진 자행되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닐까?

사람이 비록 타락하여 악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9-11)는 교훈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먹는 삶을 실천하며 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가르치게 된다.

어머니의 요리는 가족 즉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도 요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래도 가정의 식탁 요리의 책임은 역시 어머니인 여자에게 있는 것 같다.

남자와 여자 이것은 인간의 삶에 동등한 두 기둥이다. 기능의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고 귀하다. 기능의 차이는 생명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또한 인간 권리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오히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 더욱 귀하고 아름다우며 이 차이가 있는 기능을 그 차이대로 최대한 계발하는 것이 남권이나 여권 곧 인권이 바르게 신장되는 길일 것이다.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아서 구별이 어렵게 되고 그 본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그 기능이 무시된다면, 세상에 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으며 과연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는가? 오히려 가치와 질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리라. 하나님의 칭호를 여성 칭호로 부른다고 여권이 신장되거나 신앙이 고양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한 의미를 천착(穿鑿)해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이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 그 기능을 다르게 주셔서 사랑과 연합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복음의 본질을 생활로 배우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한히 감사하지 않는가?

5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우리는 상식적인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틀 속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게 마련인 것 같다. 비상식적인 일을 말할 때에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일단 부정하는 습관이 몸에 밸대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다.

상식과 관련하여 말하면 우리가 상식 세계에 산다라는 표현이 합당한 말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들로 표현하면,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교육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 울타리가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형성된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긴다. 이것을 한마디로

문화와 도덕이 형성하여 준 무의식이라고 하자. 즉 문화적 무의식의 의식, 도덕적 무의식의 의식이다. 여기에 우리의 판단의 맹점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내 스스로의 것은 하나도 없는지도 모른다. 나의 형체도 부모에게서 왔고, 나의 목숨도 부모에게서 왔다. 결국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부모가 먹여 주고 길러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하는 과정 동안 사람은 부모와 가족에게서 느끼고, 듣고, 보고, 배우며, 그것이 자신의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학교에서, 책에서, ...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형성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한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연유(緣由)한 것처럼 행동한다. 얼마나 교만하고 무모한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일은, 문화적 무의식의 의식이나 도덕적 무의식의 의식에 의하여 판단되거나 정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간의 세계 밖에서 계시적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은 남자에게서 온다. 그래서 남자는 생명을 낳아주고 여자는 그 생명을 받아 기른다. 그래서 옛 사람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이다. 물론 남자에게서 나온 정자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난자와 합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정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교미되지 않은 계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이 아닌가?

이렇게 된 것은 창조주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지난 장(章)에 이 사실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내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전 11:8)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형체와 생명은 남자에게서 왔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하리라”(창 2:23)고 선언한 것이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므로 남자가 형체가 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형체와 생명에서 여자를 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남자가 전수(傳授)한다. 즉 인간적인 생명의 근원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자에게서 생명을 전수 받은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에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직 남자의 후손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명령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지금도 있고, 사람이 이런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다”(창 1:31)고 말씀하셨다. 이 심히 좋은 상태가 계속되고, 이 심히 좋은 상태대로 사람은 생육하고, 번

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대로 존속하는 것이 필연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기능(뉴스타트, 1993년 6·7월호 30쪽을 보라) 중에 마지막 기능인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이 심히 좋은 상태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드러나 있다.

자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이다. 이 자유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가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였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명령은 바로 아담의 생명과 존재 자체인 셈이 아닌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생명과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거절하면 그는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때때로 형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위적인 형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형벌에서 면제되기 위하여 것처럼 호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필연적인 결과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 곧 무(無)로 돌아

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신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었다. 결국 자유를 잘못 행사한 것이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그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의 뜻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7, 19).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이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창 2:7).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그의 존재와 생명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담에게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그의 모든 후손도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서 말한다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된 사실을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성경은 이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고전 15:22)이라고 계시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하여서 재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른 아담을 만드셔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창 3:15)이라는 말로 계시하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남자 곧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의 후손으로 는 생명으로 존재할 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을 탄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최초의 부부를 찾아 불러내시고 그들의 상태를 물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상태를 바로 보기를 원 하였고, 그것은 곧 “있기는 있는데 없어진 것”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있게 한 대로 다시 있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기보다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즉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묻기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물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있게 한 대로 있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미 없어진 것이 스스로 있게 되는 길은 없다. 있는 자가 다시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다시 있을 길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가! 죄인 된 사람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고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을 다시 계속적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재를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생명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남자인 아담 대신에, 원래는 남자 없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여자를 통하여 다른 한 생명의 근원 곧 새 아담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상관없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뱀과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그래서 서로 싸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창 3:15). 결과는 분명하다. 여자의 후손의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에 아담은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다.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잇샤”(*’iššāh*)인데 “남자에게서 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존재와 생명이 남자에게서 근원 하였다는 사실을 “잇샤”라는 이름 속에 간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자 아담도 같은 결과로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한 생명의 근원 곧 여자의 후손인 새 아담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담

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창 3:20).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다. 아담 자신이 사망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은 신앙 고백적인 이름인 것이다. 하와 자신은 비록 자신의 생명을 잃었을 지라도 여자의 기본적인 기능인 생명을 받아 기르는 기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한 생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여자의 몸을 빌어 잉태되고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라는 이름 곧 남자에게서 났다는 뜻의 이름 대신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올 것을 뜻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신학자들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원복음(原福音, Prot-evangelium)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여자의 후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 아버지가 없다. 예수님이 구주시오 새로운 아담이기 위하여는 인간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인간 아버지가 있으면 그는 아담 곧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오해하였다. 자기에게서 나는 남자가 여자의 후손인줄 알았다. 그래서 그가 아담과 동침하여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는데, “얻었다”는 뜻이다.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아담이 났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인은 새로운 아담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아담의 씨 곧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창 4:1).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아니라 아담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상관없이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 1:18),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26, 30, 31, 34, 35).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4, 25).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갈 4: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

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편에서 말하면 철저히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는 아담의 생명과 상관이 없다. 당신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씨가 되어 여자의 기르는 기능을 빌어 새로운 생명적 존재로 탄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아담이시다(고전 15:45). 태초의 아담이 첫 아담인데 그것은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로 받은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으면서 모든 가능성도 잃어버렸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과 존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죽게 된(고전 15:22)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한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생명적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은 여자의 후손의 생명으로 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와 죽은 생명인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아 장사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아담 예수의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하여 여자가 아담에게서 난 것을 지적한 것과 같이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전 11:8, 12)고 말하는 것이다. 하와는 남자에게서 난 여자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남자이다. 그래서 이 예

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는 새 아담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인데, 곧 사망과 생명의 이야기이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의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시고, 사람이 상식으로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단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비난의 소리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야 곧 구주가 된다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식이나 문화적 무의식으로 천단(擅斷)하거나 포폄(褒貶)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6

결혼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혼인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그로 더불어 살기로 서약하는가?”

“예.”

“또 사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순경이나 역경이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봉사하며 모든 고락간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오직 그로 더불어만 살기로 서약하는가?”

“예.”

오늘도 이 지상에서 수많은 남녀가 결혼식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

었을 것이다. 주례자 앞에서 평생의 진실과 사랑을 맹세했을 것이다.

또 오늘 이 지상의 여러 곳에서 이런 신성한 결혼 서약을 종잇장 찢듯이 찢어버리고 이혼한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결혼식 때의 서약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했을는지 모른다. 결혼을 하고 나면 전혀 남이었던 이성(異性)끼리 한 방에서 살게 된 특이한 기분에 들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러한 기분의 연속이 아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자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서약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진정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가정이 파괴되는 세월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혼 안내서가 잘 팔리는 책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을 지경이고 보면 가정을 중히 여기고 대가족 제도 속에 훈훈한 인정을 바탕으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이루어왔던 우리 조상들의 미덕은 벌써 길바닥 흙먼지 속에 내동댕이쳐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와 전통의 질곡(桎梏) 속에 왜곡된 결혼상에 대하여 과감한 탈각(脫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며, 결국은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혼은 생명을 이어가는 경건한 수단이다. 또한 결혼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므로 인성을 고상하게 계발하는 훈련의 방편이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파괴(破棄)하는 것이며, 그래서 인성은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되며 자손들은 방황하고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천사 창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계시는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밋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눅 20:34-36).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 22:30)는 말씀은 천사가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천사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성경은 천사들을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말한다(계 5:11). 생산되지 않았는데 그런 많은 천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므로 학자들은 하나님이 일시에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옳은 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에게는 아버지 천사, 어머니 천사, 아들 딸 천사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 일시에 필요한 만큼의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성경은 바람과 불꽃으로 천사를 삼았다고 기록한다(시 104:4).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 곧 그룹 천사와 스랍 곧 불꽃 천사로 나뉘어 불리는 것 같다(시 18:10; 사 6:1-3).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창 2:22)고 결혼 예식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기념할만한 것이며, 이것은 결혼이 성취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고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 1:28, 29).

이 주례사에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법칙과 그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생육의 법칙과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대상을 통하여 실천되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이 창조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들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하신 것이다. 혼자서는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실천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6. 결혼

결혼하여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사랑이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된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있을 때는 서로 실천하는 사랑이 하나뿐이었는데 자녀가 하나 태어나면 사랑이 하나 더 늘어나고 둘이 태어나면 사랑이 둘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이렇게 땅을 채우시는 목적은 혈연으로 짜여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 사람들을 통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천사들의 세계가 비록 완전하겠지만 사람이 누리는 이런 사랑의 특권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번성과 그 생명과 함께 누리게 될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요 특권인 것이었다. 이 특권은 생명과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관계 안에서 사람의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여자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약 4:4).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결혼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겔 16; 렘 3:1-10).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말 2:16).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생명과 사랑이 없다. 사망이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정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사망의 종이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생명인 양, 사랑인 양 착각을 하고 사랑의 파괴를 즐기면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말 2:16). 이혼은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사랑의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마 19:6) 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의 가장 확실한 표상이요 기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범죄한 후로 진정한 사랑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도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옅은 그림자라도 세상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가정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편린(片鱗)마저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니 세상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사회가 이토록 어지럽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원인은 바로 결혼의 거룩성과 존귀성을 잃은 데서 연유하는

6. 결혼

것이다.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종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롬 8:21). 그래서 처처에 썩는 냄새가 등천을 하고 있다. 가정의 파괴는 윤리와 도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길인 것이다. 사랑이 실천되고 훈련되어야 할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 냄새의 발원지가 되었고 그래서 가정 안에 이 냄새가 더욱 지독하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결혼 제도의 이상(理想)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므로 잃어버린 생명과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요 14:6).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된다. 진정한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이 회복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다(말 2:15). 경건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녀들인 것이다. 이런 자녀들은 곧 참된 생명,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눅 20:36).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救贖)의 사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태초의 그 결혼의 이상(理想)을 회복하는 길을 마련하셨다. 또한 인간 사회에 있는 결혼의 의미를 새롭고도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 결혼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연습과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성한 표상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22- 25, 31, 32).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과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봅니다”라고 말하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삶을 통하여, “여보, 내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 잘 몰랐으나 당신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소”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혼이야말로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성경의 결혼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요,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상의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세상이 될 때에는 결혼이 없다.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 이런 사랑이 실친된 사람들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만큼만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이 된 사람들이요 생명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

씩는 것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봉사와 실현만이 있는 곳이다.

이래서 결혼은 엄숙한 일이요 가장 진지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알고 믿는 모든 가정은 반드시 이런 결혼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짙게 토해질 때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정화될 것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만이라도 말이다.

7

가인과 아벨

창조된 인류가 비극을 실감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녕 죽게 되었을지라도 죽음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죽는 것이란 창조되기 이전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나님께 들었을 뿐, 그 실제적인 모습을 체험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담은 흙을 만지면서 자신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이런 것이었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의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살인 사건으로 뼈아픈 슬픔과 함께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 4:1-5).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가인 곧 “얻었다”는 이름을 지었다. 이 뜻은 창세기 3:15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뜻이었다. 즉 구세주를 얻었다는 뜻이다. 하와는 자기들의 죽음을 회복할 구세주가 것처럼 속히 임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침하여 득남하였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처녀에게 탄생한 여자의 후손이 결코 아닌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숫처녀에게 아담의 후손이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 잉태 탄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4, 25).

그런데 이런 기대 속에 태어난 가인은 그 부모에게 뼈를 에이는 비극을 짓씹게 한 불효 막심(不孝莫甚)한 아들이 되었으며, 그 형제간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죄로 인하여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존재(存在)와 비존재(非存在)의 이야기인 것이다.

농산물로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담은 살아 있고 아들까지 낳았다. 아담이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이미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에 의하여 유예(猶豫)된 생명인데, 이것은 속죄를 통하여 유지되는 생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구세주가 와서 아담의 죽음을 처리해 주는 대속(代贖)의 속죄를 믿는 믿음을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이러한 대속의 속죄를 믿을 때에만 유예된 생명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므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아직 살아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

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마 8:21, 22).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시한다.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것”(엡 2:1)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각설(却說)하고, 이 속죄제의 계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며, 하나님의 행동으로 계시된 진리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으며, 그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하였다. 즉 직접 보고 배운 시대에서, 보고 배운 사람에게 듣고 배우며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들은 말씀은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인 것이다. 즉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 가버린 자인 것이다.

아벨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실천하였다. 속죄제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없어져야 할 나를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없어져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레 17:11)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히 9:22)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 즉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태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양이 피흘려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계 13:8).

그런데 가인은 이 지극히 중요한 계시의 내용을 우습게 여긴 것

이 틀림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자질구레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면 되었지 무슨 꼭 피를 흘리는 일을 해야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 피흘림의 제사가 바로 대속의 속죄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유일의 길인 것을 간과(看過)해버렸는지도 모른다. 자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자기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실을 제사로 드리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다.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대로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유예(猶豫)된 사망(死亡)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에만 알게 된다. 가인은 아담을 통하여 주신 속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지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으나, 그 지성이라는 것은 죄로 죽은 지성일 뿐이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의식이 있고 사고(思考)가 있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존재(非存在)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심히 어려우며, 여기에 영원한 사망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없는 자[非存在]가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다. 없는 자가 드리는 것은 없는 것이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는 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없는 자”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한 가인은 비존재(非存在)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다. 무슨 요술 같은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계시는 실제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어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쩔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쩔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6, 7). 즉 가인이 죄를 다스린 후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제이기 때문이다.

이 창세기 4:7은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곳이다. 이 미 언젠가 말할지만 죄는 죽음이 나타나는 성질이요 모양인 것이다. 즉 썩는 모습인 것이다.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비존재들은 죽은 자요 그래서 썩는 자들이다. 오늘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도덕은 썩어 가는 모습이요, 썩는 냄새이다. 죄를 다스리라는 부탁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라는 부탁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산 자가 되는 길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죄”라는 히브리어나,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말 “하타트”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이기 전에 생명을 소유하라는 권고이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무슨 악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요일 3:12).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의 행한 악행은 오직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뿐이며, 아벨의 의로움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고 증거 한다. 아벨의 제사는 사람이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세주가 장차 오셔서, 아담 안에서 창조 이전 상태 곧 무로 돌아 가버린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제사, 곧 속죄제를 드린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의 의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악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성경의 논리는 세상의 도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상태대로 있지 아니

한 것은 그 자체가 죄요 죄는 죽어 썩는 것인데, 그 죄의 썩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존재와 생명의 관점에서 악행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적 존재, 즉 하나님이 있게 하신 길을 좇아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려 너의 “유예(猶豫)된 무(無)”를 “영원(永遠)한 무(無)”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타이르시는 것이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유예된 무”가 생명적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데, 곧 속죄제로 말미암아 구세주 안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대로의 존재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가인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벨을 죽여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간주되는 아벨을, 그 실정적(實定的) 존재를 죽여도 그는 과연 있는 자인가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은 죽었다. 그러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히 11:4). 아벨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골 3:3)다. 그러므로 그가 실정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만나는 사람이 자기의 실정적 존재를 죽일까봐 무척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로 간주된 아벨도 자기가 죽이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 영원한 무로 확정된 자기가 실정적 존재마저 잃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래서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가 살았다고 하나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에 매여 종노릇하는”(히 2:14)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가인은 영원히 잃어버린바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살았을 때에, 그를 만날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를 죽이겠느냐고 말한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동양인의 조상이요 다른 인종이 또 있었다느니, 아담 외에도 많은 동물 같은 사람이 창조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 아담이 특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품부(稟賦) 받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다느니 하는 것들이 그런 엉터리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면, 가인이 염려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말인가? 가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연수(年數)를 생각한 것이다. 자연 상태로 수명을 누린다면 팔·구백 년을 살 수 있는데, 그가 삼사백 년을 살았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벨을 죽였을 당시에는 그의 부모와 혹시 몇 자매 외에 사람들이 없었을지라도 그가 삼사백 살이 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가인은 그 때를 내어다보고 하나님께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는 영원한 존재를 잃어버린 마당에서 실정적 존재를 일찍 잃기를 원치 않은 것이었다. 가인 같은 존재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그런 소박하고 불쌍한 소망일 뿐이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삶을 그래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 서글픈 모습일 뿐이다. 가인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가인 같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절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

정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가인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아벨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시해주는 사건이다. 믿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존재로 간주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실정적 존재를 참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담 안에서 없어진 자일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호소하신 그 사랑의 호소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리로 들려온다.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 아벨의 믿음의 호소를 듣지 않으려는가?

8

성경의 족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해도 그 족보 때문에 흥미가 없어요. 시작부터 웬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니까?”

독자들 중에도 혹시 이런 투정을 해 본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신약을 펼친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 있는 족보를 읽다가 쉽게 질려버린다. “낳고, 낳고”를 계속 읽으면 잠도 오고 싫증도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겨우 1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수이다.

성경은 심심찮게 족보를 적어놓고 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후로도 여러 족속들의 족보가 짜증날 만큼씩 기록되다가, 역대상에 와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열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사람의 족보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사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실마리가 있고,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 계시가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족보를 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특히 명문 세가들은 족보를 잘 마련하여 보존하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을 가문의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것은 자신과 그의 가문의 존재 근거를 밝혀주는 재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족보 없는 놈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난 모독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욕하는 소리로 생각한다. 족보가 없는 자는 그 출신이 천노(賤奴)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족보는 가계(家系)의 근본을 확실하게 하는 재료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특정 가문 이야기를 적어서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지만, 파평 윤(尹) 씨 집안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가문은 한국에서 명문에 속하는 집안으로서, 양반임을 자랑하는 가문이다. 그런데 그 문중에서도 특히 파평 서원 윤 씨 가문을 더욱 양반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유인즉, 난리에 모든 문중이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서원 사람들이 족보를 잘 간수하여 그들의 뿌리의 증거를 보존하였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나는 서원이 마을 이름인지, 서원(書院)인지 알지 못하지만, 족보의 귀중함에 대한 일면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족보는 그들의 근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마 서양 사회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족보를 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귀족들이 자기 가문이 귀족 가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족보를 보관하지 않았을까?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는 뿌리(*Roots*)라는 소설로 자기의 조상을 찾으려는 피맺힌 노력을 보였다. 조상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며, 조상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후손의 운명이 좌우된 역사적 사실은 굳이 예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족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족보도 중요한 계시를 전해준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어느 족보도 중간에 끊어지고 만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金首露王)에게서 끝난다. 그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는 구지봉(龜旨峰)에 내려온 큰 알에서 나왔다고 한다. 결국 김해 김씨는 알의 후손인가? 밀양 박 씨도 경주 양산 밑에서 말울음 소리를 듣고 가서 얻은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朴赫居世) 이상의 족보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돌연 진화를 믿었는가? 어쩌서 모두 알에서 나온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인류의 시조로 아담을 소개하면서 아담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분명히 계시하셨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다.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다. 만일 누군가에 의하여 존재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를 존재하게 한 자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확실히 스스로 계신 분 곧 여호와이셔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다. 성경의 족보는 이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래서 족보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6-28).

성경의 족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조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무도 스스로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사람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족보가 계시하는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규명(糾明)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있지는 않았다. 우선은 부모가 자기의 존재 근거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김해 김씨는 수로왕에게까지 가고 그 다음은 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알이란 말인가? 밀양 박씨는 양산 밑에서 울던 말이 두고 간 박 같은 알에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근본은 말이란 말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요 신화라고 말한다. 결국 사람의 근본은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근본을 찾으려는 온갖 노력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그래서 땅속 깊이 묻혀 있는 케케묵은 해골들을 찾아 놓고 사람인지, 유인원(類人猿)인지, 원숭이 지를 분별하려고 현대 문명의 온갖 과학 기기들을 동원하여 가장 원시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 실례가 된다면 용서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밝혀내지 못한다. 엉뚱하게 찾아놓은 것이 아메바이다.

생각해 보라! 인류의 시조가 아메바라고 하면, 인류의 근본은 한낱 미생물일 뿐이다. 오늘날 인명 경시 풍조는 시대가 만든 사회적 문화적 풍조이기 전에 족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멀리서는 아메바로, 가까이에서는 원숭이(?)

로 주장한 진화론이 이미 인명을 경시하는 기초를 놓은 것이 틀림 없지 아니한가? 그래서 성경은 오래 전에 이런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정말 사람은 존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아메바에게서 진화되었다고 믿는 것은 자기의 존귀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만 것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 부모를 모르는 자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다. 버려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양육(養育)을 받아서 그 가정의 식구가 되었으면, 자기의 신분은 자기가 양육받은 가정에서라도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누구인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부모님이 나를 누구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계시적 존재가 아니겠는가?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계신다는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자식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부모를 찾을 수 있고 더듬어 올라가 조상들을 찾게 된다. 족보가 이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준다고 말하면 무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사람의 존재 원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즐거 쓰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더듬어 올라가 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다. 자기의 족보를 중히 여길 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된 본성 때문이다(롬 1:28). 그것은 자기가 있으면서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량자와 같다.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자기가 없는 자가 되고 만다. 부모가 없는 자는 자기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다.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다(출 21:15, 17).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다(고전 15:45).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말은 인류의 시조를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의 시조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인류가 참으로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미 우리가 “성경의 사람 이야기” 시리즈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며, 또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는지 들었다.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장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참 생명의 창시자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죽은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시여자(施與者)

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로 처리되고 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족보의 시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분명히 밝힌다. 특히 누가복음 3:23-38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거슬러서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1:12, 13). 우리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으로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중요한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족보는 네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계시한다.

둘째, 각 개인의 존재 근거에 대하여 가르친다.

셋째, 민족의 발생과 그 계통을 알려준다.

넷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계통으로 탄생할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첫째에서 셋째의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넷째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성경은 창세기 3:15에서부터 구세주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극비 문서가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

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방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세주가 탄생하는 일에 지극히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의 계통, 방법,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길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오지 않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족보에는 구세주 메시야가 나올 가계(家系)를 분명히 지적하여 아무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슬람도 구약의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마호멧을 대선지자로 믿는다. 그들은 마호멧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계통이라야 구세주의 계통인 것을 분명히 하였다(창 17:19).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거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만드시 그 족보가 아론의 족보에 확실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다(스 2:61,

62). 유대의 왕도 틀림없이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하였다. 이런 것이 족보로 계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속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족보로 인하여 구세주 예수의 성경적 계통적 예언적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어떤 자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부르짖어도 속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분은 예언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에서 와야 하고 예언적으로 또한 순결한 처녀에게 나셔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구세주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의 예언인 것은 우리가 이미 확실히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마태복음 1:1에서 선언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오해가 훗날에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6-58)고 밝히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생명의 씨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 22: 41-46).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실제적인 생명의 씨가 아닌 것을 밝히셨다.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언적 혈통인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록되므로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한 점의 하자(瑕疵)도 없이 분명한 다윗의 자손으로 확인 되게 하셨다.

족보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의 족보이든지 성경의 족보이든지 그렇다. 그러나 세상의 족보는 자기 가문의 여예와 전통을 보존하려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을 찾게 하되, 인간들이 잘 쓰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르게 찾아 아무도 속지 않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데 아무런 혼란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조상의 족보가 있으며 동시에 성경의 족보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된 분명한 족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격에 계시된 족보의 이러한 계시적 뜻을 이해하여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기를 바란다.

9

노아와 그 시대

노아는 아담의 10세손이다. “노아”의 뜻은 “위로” 혹은 “안위(安慰)”이다. 세상이 죄의 저주로 인하여 수고로워졌는데,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정말 그의 시대의 세상은 오늘날만큼이나 죄의 범람으로 고통스러웠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땅에 강포(強暴)가 가득하였다고 한다(창 6:11). “강포”라는 말을 요즘 말로 쓰면, “폭력”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세상에 폭력이 난무했다는 말이다.

세상이 이처럼 폭력으로 가득하게 된 원인이 “사람이 육체가 되

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창 6:3).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처음에도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창 2:7). 그런데 그 흙으로 구성된 것은 살과 뼈를 가진 몸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빼낸 갈빗대 자리에 살(육체)로 대신 채우셨다고 말한다(창 2:21). 그러므로 사람이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부터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왜 창세기 6:3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했는가? 이 성경 절의 난외주(欄外註)를 보면 “육체이므로 범과 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실 이 말은 참으로 위험한 사상을 도출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육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사상이 깃들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천사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천사도 범죄 하였다(벧후 2:4).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 구역(舊譯)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명료하다. 사람이 “범죄 하므로 육체가 됨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쑤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의 뜻이다.

성경에는 육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살을 뜻한다.

하나 다른 의미 없이 사람 자체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하나는 죄의 인격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빌립보서 1:22에는 “바울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을 의미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고린도후서 12:7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을 의미하고 있다.

요한복음 1:14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한다. 여기에 쓰인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말이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로 구성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지 죄의 인격체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했을 때도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골로새서 3:22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육신 혹은 육체라는 말이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말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뜻으로 생각해버리면 성경의 어떤 진리를 오해하게 된다.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하셨을 때, “육”은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신 것이 확실하다. 이 때 “육”이라는 말은 죄의 인격체를 가리킨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전 2:14)고 했을 때도 이 말은 죄의 인격을 가리킨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롬 8:7-9)고 했을 때도 물론 죄의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한참 더 찾을 수 있다.

창세기 6:3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은, 바로 죄의 인격체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은 곧 죄가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창 6:5, 6)고 말한다.

폭력과 싸움은 죄의 인격체들의 특성이다.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할지라도, 싸움과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일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과 인간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집단에 불과하다.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홍수는 그 당시 세상에 관영(貫盈)한 죄의 물결일 뿐이다. “관영”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이다. 차고 넘치니까 홍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죄의 장본인인 사단은 세상에서 의기양양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당당한 지구의 대표로 여호와 앞에 나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지구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맡기라

고 주장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지구의 대표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충분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욥의 이야기를 써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자세한 것을 쓰려고 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정복하시기(골 2:15) 전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나들었다. 그는 밤낮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소했다(계 12:10). 이 참소자 사단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자기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왔으니 세상 운영권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단의 주장에는 논리가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었다. 이 정당성에 대하여는,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주장하였고, 예수님은 잠깐 그의 주장을 시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승리의 부활하실 때까지는 사단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주장을 당신의 권위로 누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사이시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지구는 균형을 잃고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지구 전체가 홍수에 휩싸이고,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을 아셨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왕국을 탈취하여 하나님께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올 수 없도록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하여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지구의 운영을 맡으면 운행의 균형이 깨뜨려질 것인지 어떤 지도 몰랐겠으나, 그렇게 되어 세상이 멸망해도 사단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엄청난 성공이기 때문이다.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게 된다면, 사단으로서는 이 지구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 명하신 당신의 말씀과,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속(救贖)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세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도록 분부하신 것이다.

노아는 정말 죄로 수고로운 세상에 위로가 되었다.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간청하였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들이 일상 생각하는 상식과 노아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밤이면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었고 아침이면 안개가 잦아졌다. 물론 그 안개가 농무(濃霧)가 되어 밤의 아름다움을 덮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땅과 땅에 사는 생물들이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였다(창 2:6).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 과학은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비과학

적이에요 다만 신비 종교가의 망상이라고 웃어넘겼다. 900년씩이나 사는 세월에 연구한 과학은 오늘날 과학보다 월등하였을 것이다. 그런 과학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비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비과학적 망상에 불과하였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이 연구한 과학을 더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노고(勞苦)를 광신자의 도로(徒勞)라고 조롱하였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산기슭은 구경꾼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정신병자의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짓는 일을 함으로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확실한 것을 생활로 증거하고 있었다.

자비의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셨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세월이 120년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간으로 120년을 주신 것이다. 120년간 성령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권고하셨다(창 6:3; 벰후 2:5).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노아의 기별을 진지하게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여보, 노아 영감님은 세상이 다 아는 진실한 어른이 아니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을 것이요. 그러니 배를 다 짓거든 우리도 들어갑시다.”

이 말은 들은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반발했다. “아니, 이 양반이 그 미친 영감에게 홀렸구만. 비가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요? 하늘

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느냐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못 들었요. 과학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들어가려면 혼자가요. 나는 안 갈 테니까.”

이렇게 쏘아붙였을 것이다.

또 아내가 감동을 받고 들어 왔을 때는 남편이, 혹은 부모가, 혹은 자녀가 반대했을 것이다. 결국 반대의 목소리가 이겨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노아와 그의 식구들뿐이었다. 사단은 꾀재를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때는 지나갔다.

과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명한 비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쏟아졌다.

그때야 너무 늦게 방주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방주 주위에 몰려와서 문을 열어주면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고, 영감님의 말이 진실인 것을 이제 믿는다고 아우성을 쳤어도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홍수의 때는 이미 닳았고 기회의 문은 이미 다 닫힌 것이다.

홍수는 한 시대의 종막을 고하였다. 노아의 아들들로 인하여 세상의 인종이 퍼졌다. 이렇게 세월은 또 수천 년이 흘렀다.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악하다. 정말 죄악이 차고 넘친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소멸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일에 더디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사람들은 과학적 주장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다.

병들면 으레 의사를 찾으며 현대 의학을 과신하고 있지만, 그 발달한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너무 많다. 어떤 난치병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뉴스타트(NEWSTART)를 실천하면 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 의학이나 과학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6, 7). 그때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벧후 2:5).

성경의 계시는 너무나 확실하고 틀림없다. 머지 않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노아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정확 무오(無誤)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의 형편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

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7).

홍수가 한 시대의 종막을 고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죄의 세상 역사의 종막을 고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죄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물론 여섯째 날에는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도 하셨다. 또한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즉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 2:18)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둘째 날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 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일이 끼어 있었다는 말일까?

여기에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덜 성경적인 해석은 창세기의 창조는 두 번째 창조라는 설이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지구에 가두어 깊은 흑암으로 덮어두었는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눌 때에, 물 밑 깊은 흑암에 갇혔던 사단이 나와서 활동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중국계 미국인 성경학자인 조세광(趙世光) 박사는 그의 **창세기 강해**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고, 요즘 번역 출판된 킹 제임스 성경 한글판에도 이 사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창세기 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번역했다. 이런 번역은 결국, 그 전에 한번 창조하여 땅을 채우게 했는데, 사단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물로 덮어두었다가 다시 창조하여 그 창조한 사람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했다는 해석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요한계시록 12:7-12에 계시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은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계시한다. 그러므로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에 사단은, 땅의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사단이 갇혀 있는 흑암의 구덩이는 죄의 세상이 된 이 지구를 가리킨다. 베드로는 사단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했는데(벧후 2:4), 심판 때까지 갇힌 사단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도 그들이 때가 이르면 해를 당할 것 곧 없어질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 8:29)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다. 계시록의 기록도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말한다. 그래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한다. 폭력이 편만한 세상이 된 것은 사단의 분노에 사람들이 휩싸였기 때문이다. 사단이 지구의 물 속에 깊이 갇혀 있다가 창조의 둘째 날 물 속에서 놓여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증거 할 말씀은 많이 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번역이 “다시 채우라”고 번역한 것은 전혀 비성경적 발상인, 사단이 흑암의 깊은 속에 갇혀 있었다는 발상에서 나온 번역이다.

또 하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둘째 날에 하신 일이 셋째 날에 가서야 완성되었으므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으나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을 두 번했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다. 사실 둘째 날에는 물을 궁창 위아래로만 나누었으나,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므로 물과 땅에 대한 창조 사업을 비로소 마치신 것이다. 그래서 땅을 드러내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식물(植物)을 나게 하신 후에 떠 한번 좋았더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해석 이상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사족(蛇足)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또 하나, 나의 해석을 달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동의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엉터리라고 말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런 발상도 조금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다.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이 노아 때에 불가불 홍수가 날 것을 보셨다. 그래서 궁창 위에 둔 물이 그때 땅으로 쏟아질 것을 보시고 좋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노아 때에 궁창 위에 었어 둔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땅이 홍수의 깊음에 휩싸여서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죽을 것을 보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성경은 “노아의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 12)고 말씀한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궁창 위에 두었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인 것이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창 7:19). 이 홍홍한 물결 위에 오직 노아 식구의 방주만이 외로이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었다(창 7:22). 이러한 미래를 미리 보신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 위, 아래 물을 나누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못하신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필자는 해본 것이다.

이 홍수 기사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라는 등,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계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은 어디서나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홍수가 세계적 현상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적 현상은 현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홍수의 창일(漲溢)한 물은 150일을 땅에 넘실거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땅 위의 물을 잦아지게 하셨으며, 노아는 마른땅에 내려온 다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다. 무지개가 서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도 되는 것이다.

홍수 후에 여러 이변(異變)이 나타났다.

첫째,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이 만나서 그리는 빛의 색조를 하늘에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홍수 전에는 비오는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가 오지 않고도 지상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다면 분명 낙원이 아니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창 2:5, 6)고 성경은 계시한다.

둘째, 더위와 추위가 생겼다는 것이다(창 8:22). 이것은 홍수 전에 세상에는 한서(寒暑)의 차이가 없었고, 온 지상이 다 쾌적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켜주는 말씀이다. 정말 시베리아

빙원에서 빙하 속에 얼어붙은 매머드(mammoth)를 발굴하였고, 그 위장 속에 아열대성 식물이 검출된 사실로, 지금은 빙원인 시베리아 빙하지대가 한 때는 아열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얼마 전(1994년 9월경)에는, 남극 지방에서도 아열대 동물의 화석을 발견함으로 온 지구가 쾌적한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인공 위성을 타고 무중력층에 올라간 미국의 한 우주인이, 그곳에 물을 뿌리자 물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방울방울 우주 유행을 하는 것을 본 우주인이, 만일 이곳에 물을 채우면 물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만일 무중력층을 전부 물로 채우면 지구에는 한서의 차이가 없을 것이며, 온 지구가 쾌적한 기후가 될 것이라고 한 과학자가 말했다고 전한다.

이런 이야기는 궁창 위의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어 온 땅을 쾌적한 기후로 지탱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보호막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자 지구는 보호막을 잃고 계절적으로 더위와 추위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역적으로 한대와 열대를 구분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된 것이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향년이 950세가 되었지만, 그 아들 셈은 600세를 향수 했을 뿐이며, 그의 9대손 데라는 겨우 205세를 향수 했다. 얼마나 단축된 수명인가?

이렇게 인간 수명이 단축된 것은 홍수로 인해 환경과 기후가 변

한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황폐한 환경, 전혀 다르게 변해버린 기후, 게다가 식량은 풍부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에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 육식을 하게 된 것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도 육식은 현저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육식 이야기는 다음에 니므롯 이야기를 할 때에 자세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산정한다. 그것은 탄소 14의 반감기(半減期)로 계산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지질학적 지층의 구조도 그것을 증거 한다고 한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이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의 지층을 연구하면, 지질학적 지층이 지구의 나이를 산정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말한다. 지층은 차라리 격변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 격변은 홍수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탄소 14의 반감기 문제도 꼭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과학자가 탄소 14의 반감기 측정으로 연대를 아는 것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해 전에 주워서 자기 책갈피 속에 넣어 두었던 나뭇잎으로 연대 측정을 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1,000년이나 되었다고 계산해 낸 것이다. 얼마나 기막히는 경험이었겠는가?

탄소 14는 왜 생성되는가? 모든 유기체(有機體)는 일정량의 탄

소 14를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기체가 생명을 잃은 때부터 이 탄소 14는 반감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기체 안에 남아 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므로 그 유기체의 생존 연대를 계산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모든 유기체가 탄소 14를 체내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지구상의 유기체들이 우주선(宇宙線, cosmic rays)에 노출되어 우주선 때문에 형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우주선은 일정한 수층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창 위에 물 층이 있을 동안에는 이 우주선이 지구의 생물들 곧 지구의 유기체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홍수 전에 죽은 유기체의 잔해들에게서는 탄소 14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여 탄소 14의 유무에 의하여 연대를 산정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바른 이해의 길이며 참된 지혜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홍수 전에는 우주선의 침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이 홍수 후에 방사선인 우주선을 쬔게 되었을 때 이것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이유였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도 X-Ray 촬영 기사들에게는 방사선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은 현저히 단축되

었으며, 지구 연대 측정의 역측도 나오게 되었다. 사단은 인류를 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섭리를 무효케 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업을 오해하게 하는데는 얼마큼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성공했을지라도 망하는 결과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에 죄가 관영 하였을 때에 홍수가 임하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 결국 홍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였을 뿐이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렘 6:19).

오늘도 세상에 죄가 관영 하다. 오늘날 세상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앙이 이를 것이 틀림없다. 그 재앙은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므로 그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6, 7).

홍수(洪水)가 아니라, 홍화(洪火)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인격을 이루어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사르는 불을 피하

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한번 불로써 세상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불로써 이 세상을 깨끗케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창세기 6장을 읽으면 첫 줄부터 이상한 표현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창 6:1, 2)는 기록이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 요즘도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인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것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이야기에

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다음에 네필림(nephilim)이라는 거인을 낳았다는 전제로 해석되어지는 것 같다. 기록된 문장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읽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땅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창 6:1-4).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을 당시 땅에는 이미 네필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용사가 반드시 천사와 사람 사이에 난 자손이라는 해석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해석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성경 절들이 있다. 주로 욥기에 있는 말씀이다. 욥기 1:6; 2:1; 38:7, 8 등이 인용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 앞에 모셔 섰는데, 사단도 거기 있

1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었다는 내용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화답하였다는 내용이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는 발상이요, 사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외에 누구이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확증은 없다. 물론 천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 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히 1:5).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 문제를 다음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힐 것이며, 대단히 흥미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인 것이다.

또 성경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

니라”(마 22:29, 30).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여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확증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네필림은 장부(丈夫)라는 말로 난외주에 기록되어 있다. 좋게 말하면 장부는 튼튼하고 장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타난 네필림은 창세기 6장의 상황에 비추어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깨,” 즉 시속 말로 “깡패”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쓴 거인들일 것이다. 체구가 거인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땅에 강포를 충만케 하는 사상의 거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거인들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성인 중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네필림인 것이다. 체구(體軀)로도 그렇다. 지금은 우리가 6척 장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6척이라야 1.80미터밖에 안 된다. 요즘은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거인 족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신명기 3:11에는 바산 왕 옥의 철침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1규빗은 45센티미터 정도이다. 그러면 침상의 길이는 4.5미터가 되고 너비는 1.80미터가 된다. 그렇다면 옥의 키는 4미터가 가깝고 그의 등 넓이는 1.8미터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1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된다. 얼마나 거인인가! 이 옥은 창조 이후 2,500년 이상이 흐른 모세 시대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거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구를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땅에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의 상태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성경을 읽으면 난해(難解)하다고 느끼는 말씀들을 자주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렵다는 내용의 전후를 잘 읽으면 대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도 4장부터 자세히 읽어 가면 대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사건과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담에게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사건과 함께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은 이와 같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일백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셋은 일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창 5:1-6). 이 말씀들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사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리고 그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아들을 낳아 노아까지 족보가 이어진다.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손들이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다. 신약은 이런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조명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요 1:12; 엡 1:3-5 등).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셋의 계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것이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 여기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셋의 후손들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는 일이 보편화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곧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태도로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이란 육체가 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요 3:6)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창세기 6:3은 사람들이 범죄 하므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딸들의 미모에 반하여 결혼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가들

1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 되어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일에 역할을 한 사실을 그들이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 하게 되었고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었다.

이런 사실로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강력히 교훈 하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이방 결혼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을 믿도록 감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다. 그래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신 7:3, 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전과 우상의 전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4-16).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신 데 어찌서 그토록 우상 숭배자나 불신자를 두려워하셨을까? 이런 질문에는 긴 대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길게 밝힐 지면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아직은 사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자기 왕국에서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성경도 이 사실을 밝히 계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요 14:30),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

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 4:5, 6).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엡 6: 11, 12).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사이시다. 당신의 전능의 힘으로 사단을 군박하시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 사단의 세력이 멸절될 것이다. 그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단의 모든 행사가 다 드러나도록 기다리시며,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이 마련한 영원한 구원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것을 귀하게 보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생존하게 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기다리신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왕 노릇할 것이다. 이직도 육체에 속한 자들의 세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눅 22:53).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과 육체에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강한 감화력을 끼치며,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현실적이 세계는 미래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래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 미래의 삶의 신분을 현재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

 1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의 아들들이 세속화할 때에 세상은 더 깊이 타락하고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교훈이다.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죄로 인하여 육체가 되는 타락에 나락에 빠졌을 때에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심판의 홍수가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정신 나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를 삼고 세상에 죄를 더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화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금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상태는 머지 않아 세상에 종말적 심판을 이르게 하는 징조가 아닌지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이여, 우리의 신분을 고귀하고 바르게 지키기를 바란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들이나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다.

그러면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셔선 존재들이요(욥 1:6; 2:1), 지구가 창조될 때 기뻐 노래하며 화답한 존재들이다(욥 38:7). 그러므로 그들은 지구

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들임에 틀림없다. 천사 외에 그런 존재들이 누가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명백히 대답하고 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보다 경이로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즐기게 된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망원경으로 보는 여행이요, 성경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세상에서 전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경이로움인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광대 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A.D. 1세기의 헬라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천동설이 오랫동안 천문학을 지배해 왔다. 오늘날 천동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웃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도 미국의 어떤 유수한 대학에서 천동설을 강의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아연실색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주장과 갈릴레오(Galileo) 등 양심 있는 학자들의 연구로 이제는 모두 지동설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천동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체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는 얼마나 넓은가? 한자를 빌어서 호호탕탕(浩浩蕩蕩)하다는 표현을 우리들은 잘 쓴다. 그렇다고 우주의 넓고 무변함을 다 표현하겠는가?

천문학의 비조(鼻祖)인 히파르쿠스(Hipparcus, c. B.C. 190-125)는 하늘의 별을 1,022개(?)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 후 260년이 지나서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c. A.D.

85-165)는 별 4개를 더 세어서 1,026개라고 했다고 한다(유영순, **인생 문제의 열쇠**, 69).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웃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옛날부터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창 15:5; 렘 33: 22).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라고 말하여 천문학을 연구해 보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사 40:15, 17)고 계시하여 우주의 넓고 큼에 비하면 지구는 크게 잡아야 먼지 같고 작게 잡으면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고 말한다. 이 표현은 너무나 과학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그 모양이 밀집 모자 두개를 마주 얹어놓은 모양인데 그 크기가, 지름이 10만 광년이요, 가운데 두께가 1만 5천 광년이라고 한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우리의 태양과 같은 항성(恒星)이 1천억 개가 있다고 한다. 지금은 더 좋은 망원경과 더 발달한 방법으로 관측하면 더 많은 항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물론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 우주 안에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 이것도 지금은 더 발달한 도구들로 관측하여 훨씬 더 많은 수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런 우주의 모습을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

1962년은 천문학의 해로 정한 해였다. 그때 한국의 신문들은 천문학 특집을 실었다. 그때 어떤 신문의 기록을 읽은 기억에 의하며, 미국의 어떤 천문학자가 우주 모형을 만들어 교육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축소(縮圖)를 계산했는데, 곤충바늘 머리의 한 가운데를 태양의 위치로 정하고 그 머리 둘레를 지구 궤도로 하는 축도로 은하계의 모형을 계산해 보니 그 모형의 크기가 북미 대륙만 하다고 했다. 그러니 어떻게 우주의 모형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 실감나지 않는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사는 세계를 오직 하나 지구만 만들었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의 엄청난 착각과 교만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에서 이런 지성적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지구 외에 없다고 단정하는 모습이다. 오래 전에 어떤 분이 쓴 시편 주석을 읽다가 칼뱅주의(Calvinism)는 지구 외에 어느 곳에도 지구에 사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었다. 얼마나 성경을 지구인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편벽된 모습인가! 어떤 물리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가 지구 외에는 사람과 같은 지성적 존재가 사는 다른 천체는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빈정대고 있었다. 천체 물리학이 이해하는 대로는 지구 외에도 이런 지성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기 전 시대에 이미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모셔 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계시해 주셨다. 그들은 천사가 아닌 것을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또한 지구를 창조할 때 기쁘게 화답한 존재들이니 지구보다 먼저 창조된 자들이 아닌가? 그들이 누구이겠는가?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시니라”(눅 3:38).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것처럼 다른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지구의 아담처럼 그 세계에 처음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중에도 장자(長子)이다. 지구의 창조를 마쳤을 때에 이들이 천사들과 함께 기쁘게 소리고 화답한 것이다. 지구를 창조했을 때뿐이라! 먼저 창조된 세계의 아담(장자)들은 다음 세계가 창조될 때마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화답하였을 것이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 맨 나중에 창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이다.

창세기 2:1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만물”이라는 말은 물론 지구상의 만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만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차바(צָבָא)”라는 것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만군”이라는 말이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군대”(출 12:41)라고 할 때에 “군대”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이사야 40:26에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라고 할 때에

“만상”이 바로 “차바”이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한 예레미야 33:22의 “만상”도 “차바”이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한 창세기 2:1을 온 우주 만물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을 끝으로 완성되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잠 8:26).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토의 근원”을 지으셨을 때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진토의 근원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당신이 생각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셨음을 알 수 있다. 그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데, 이 지구를 가장 마지막에 불러내신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불러 나와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마쳤을 때에 천지와 만물이, 즉 우주 만상이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를 관리하고 통치할 자로 아담을 만드시고 통치권을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우주의 장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록되고 정기적으로 여호와 앞에 장자들이 모이는 회에 참석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겨지고 아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에 사단이 참석하여 버젓이 지구의 대표 노릇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우주 중에 사람이 살도록 지음을 받은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히 12:23)라고 말한다. 하늘에 장자들의 기록이 있고, 그들의 총

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이라느니, 혹은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느니, 이런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들을 조목조목 분별해서 기록하고 있다. 1. 천만 천사, 2.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3. 교회, 4.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이처럼 분명하게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주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자, 생각해 보라! 이런 우주에서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은 이 지구에 사는 나 하나,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감격 없이 말할 수 없고, 눈물 없이 간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런 마음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힘이 될 것이며 우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구상의 사람들만을 위해 지신 것이 아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 20)고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범죄 하였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

12.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다. 범죄는 지구에서 저질러졌다. 아니 지구에서 저질러지기 전에 천사들에게서 저질러졌다. 이사야 14:12에 기록된 계명성이라고 불린 천사 곧 루시벨(Lucifer)이 죄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하늘의 별, 곧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편으로 끌어넣었으며 이런 일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계 12:3-8). 이런 와중에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천사장이었던 루시벨의 주장과 반역에 의구심을 품게 된 것도 사실이다. 루시벨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중상하였을 것이다.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은 이 중상의 말에 상처를 입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독재자일까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사람되어 세상에 오시고 사단 곧 루시벨의 충동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한 점의 의구심도 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7, 8)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다. 이제는 이 우주에 사단의 기만에 속을 자는 지구의 사람들 외에는 결코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도 동정 어린 눈으로 이 지구의 거민들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바라보

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때가 되면 장자들의 총회에서 지구의 거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고 찬양하지 않으려는가!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보지 않으려는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붓을 놓는다.

성경의 연대

1992년 9월 28일에 휴거(擧)가 있을 것이라던 소동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릇된 성경 이해의 상처를 되새기게 한다. 사람들은 말세 연대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또 교인들은 이런 엉터리 주장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빠져들어 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믿으며 재산을 바치고 집을 나가다가 하면 주도한 사람은, 휴거는 어떻게 하려고 돈을 모았는지! 참 한심스러운 작태를 사회가 아프게 경험하였다.

이런 계산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왔는가? 연대 계산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자못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연대는 역사적 연대가 있는가 하면, 예언적 연대도 있다. 그런데 예언적 연

대와 역사적 연대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예언적 연대는 역사적 연대에 의하여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며, 예언은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예언적 연대에 대한 해석은 거짓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연대 문제의 해석과 이해에 종종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휴거 소동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온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족보 이야기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 즉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를,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다 합산하면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세상의 연대는 1556년이 된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홍수는 아담이 창조된 후 1656년에 있었다.

또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역시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낳 때까지 연대를 계산하면 390년이 된다. 그러나 셈이 98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홍수 후 연대를 계산하면 390에서 98년을 빼야 한다. 그러면 홍수 후 아브라함이 낳 때까지는 292년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4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계산에 의하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를 B.C. 4004년이라고 말한다.

처음으로 이런 계산을 하여 세상에 발표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성공회 감독이었던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였다. 어셔의 이 연대기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이것이 발표된 후에 출판된 성경들은 이 연대를 구약 각 책머리에 인쇄해 넣었다. 아마 지금도 이 연대가 인쇄된 성경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통칭 창조된 때를 B.C. 4004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연대는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본(寫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다. 이것은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본문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으로 알려진 헬라어 번역본들이 있다. 이런 중요한 사본에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타난 조상들이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가, 어떤 사람은 일치하고 어떤 사람은 일치하지 않는다. 원본이 없는 지금에 와서 어느 사본의 것이 바른 나이인지 알 수가 없다. 어셔 감독이 계산한 것은 마소라 본문의 나이이다. 한글판 성경도 마소라 본문을 원전으로 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오경의 연대를 계산하면 창세기 5장의 연대는 마소라 본문보다 짧다. 홍수가 날 때까지 1370년이 된다. 286년이 짧다. 그러나 70인역에 나타난 나이를 보이면 마소라 본문의 연대보다 길어진다. 70인역에는 홍수 때까지 연대가

2071년이 된다. 이것 외에, 사람들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의 연대를 참고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아담부터 홍수까지 연대는 2085년이 된다.

창세기 11장의 연대도 서로 다르다. 사마리아 오경은 홍수 후 셈부터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942년이 된다. 70인역은 1172년이 된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계산으로는 983년이 된다. 그러므로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창조 연대가 B.C. 4004년이 되고,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창조 연대가 적어도 364년이 더 길다. 그리고 70인역에 의하면 적어도 1295년이 더 길다.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적어도 1120년이 더 길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아담이 창조된 때가 B.C. 4368년 정도가 될 것이고, 70인역에 의하면 B.C. 5300년이 될 것이며,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5124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조상들의 나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산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타난 숫자 개념 곧 7이 완전수라는 개념을 연관시켜서 지구 종말 6000년 설에 천년 왕국 1000년을 더하여 7000년이 된다는 설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마소라 본문을 최고의 권위 사본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서의 연대기를 좋아하며 그 연대기를 의지하여 종말 시기를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70인역에 근거하여 조상의 이름들을 적고 있다. 그래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대수가 창세기에는 10대, 누가복음에는 11대가 되어

있다.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계난이 누가복음에는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성경 구약에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인데, 신약의 누가복음은 11대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계시의 숨은 뜻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연대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무언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본들이 각각 다르게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때와 기한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루지 말라는 기별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된 책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는 결국 구약에 기록된 나이를 연대 계산에 자[尺]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계시된 예언적 연대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창조의 연대라든지 재림의 연대를 계산하는 일은 신앙인이 할만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 24:36). 또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으므로 너희의 알 바 아니라(행 1:7)고 선언하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대를 계산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런 도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지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같은 것을 연대기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다. 세상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세상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하여 연대를 예언하거나,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6:1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년”이라는 기록이나, 출애굽기 12:40, 41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과 같은 기록이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 기간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언적 연대도 일어날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있다. 이미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예언적 연대와 역사적 연대가 해석상으로 일치되기 위하여 제시된 확실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든 휴거 소동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언적 연대를 역사적 연대에 맞추어 그 연대에 일어날 사건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언 연대 해석의 원칙을 분명히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는 많은 예언적 시간들이 있다. 한 때 두 대 반 때도 있고, 1260일도 있고, 42달도 있고, 70이레도 있고, 2300주야도 있다. 날짜들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런 날짜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는 기별이 있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는가? 또한 이런 날짜들이 어떤 사건들과 관계되어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관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날짜들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깨달을 필요도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면 이런 것들을 계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언적 연대이든지 역사적 연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연대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면 한 때, 두 때, 반 때, 등에 대하여 소위 휴거론 자들이 말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식의 그릇된 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며 휴거 소동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적 연대에 대하여는 예언상 하루를 역사적 연대로는 1년으로 계산하라는 지시가 성경에 있다(겔 4:6). 물론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언적 하루가 역사적 연대로 일년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해석한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된 확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요 달수로는 42개월이며, 날 수로는 1260일이다. 이것은 다 같은 기간을 뜻한다(계 12:6, 14을 대조하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 예언적 연대는 역사적으로 1260년이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1260년이 되는가는 예언된 그 연대가 시작되는 사건을 역사에서 찾으면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다니엘 7장을 연구하면 안다).

나는 이 글에서 예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 전문적인 이야기는 피하려고 한다. 성경의 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려고 할뿐이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교회와 사회와 개인 신앙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 연대의 가장 긴 것이 2300주야 곧 2300년에 대한 것이다.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다니엘 9:24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시간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계 10:6).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원문에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는 예언으로 주어진 연대가 없다는 선포이다. 요한계시록 10장 예언된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진 예언적 연대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진 예언의 연대는 없다.

우리는 창세기의 나이를 계산하여 지구의 종말 연대를 정하는 비성경적 태도도 버려야 하고 예언적 연대를 성경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으로 풀이하여 휴거 소동을 벌이는 작태도 없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자신의 죽을 때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의식이 있는 동안, 언제 죽어도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이 죽는 날이 실제적인 종말의 날이다. 우리의 종말은 항상 한 발자국 앞에 있다. 이것

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의 연대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일 것이다.

니므롯

창세기를 읽으면 이름들이 많이 나타난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어떤 이름은 단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은 길게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은 간략한 이력(履歷)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사람 중에 니므롯도 포함되어 있다.

창세기 10:8, 9에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니므롯의 이력으로는 아주 짧은

14. 니므롯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다.

니므롯이라는 말은 “대적자(對敵者)”라는 뜻이다. 이 말은 “대적하다, 반역하다”는 뜻을 가진 “마라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그의 이런 이름은 태어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지, 장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지은 이름인지, 또는 주위에서 그를 그렇게 불러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왕국으로는

니므롯이 건설한 왕국이 최초의 것이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앓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이는 큰 성이라)을 건축하였”다(창 10:10-12).

성경은 니므롯에 대한 이력을 소개하면서 특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당시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들짐승이 번성하였고, 그것들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들짐승을 효과적으로 처치하여 사람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니므롯은 이 일을 잘 하여 세상에 처음 영걸로 추앙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복종하는 자리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만들어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사람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건설하여 강력한 통치를 실시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는 설명인 것 같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 제4장에서 니므롯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을 선동해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맞서게 만든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서 용감한 자요, 손의 힘이 무척 센 자였다. 그는 그들이 행복한 것은 자기 때문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항시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고 점차 전제 정치를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까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기 선조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 복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니므롯의 아버지는 구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스는 함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영적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 사람들이 사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원래 동물의 고기를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하지 않았다. 다만 채소와 곡식과 과일 등이 사람들의 음식물로 주어졌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 그것은 이미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야기에서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다.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하기 위

하여 구주가 오셔서 사람 대신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속죄제를 드리는 일로 나타내도록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짐승을 죽여서 번제(燔祭)로 드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양을 죽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있게 한대로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구주께서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식욕을 자극하여 입에 군침이 돌게 하는 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식욕거리로 보았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고기에 굶주려 사람들에게 고기를 얻어먹는 것쯤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만 고기를 먹나? 우리는 먹으면 안 되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는 고기 우리도 먹자는 욕심으로 사냥을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인간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이기심의 도구로 바꾸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노아 때에 땅에 강포가 가득하게 된 이유 중에 이 사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로 세상을 강포 곧 폭력으로 채우고 홍수를 불러들여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다 멸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이다. 니므롯은 사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

나눔이 짐승(특히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고기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는 고기를 나도 먹겠다는 주장으로 사냥을 즐겼다는 말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예배를 받는 자가 되겠다는 말이다. 속죄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드리도록 했다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 받기 경쟁을 벌인 존재인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빼앗아갔던 사단은 홍수의 쓰라린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여 니므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기심의 도구로 바꾸어 사람을 예배하게 하여 결국 사단이 경배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니므롯 숭배의 종교요 태양신 종교를 만들어 놓는 시초가 된 것이다.

니므롯에 대하여는 전설이 있다.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Semiramis)라고 한다. 니므롯이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태워서(아마도 구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본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심히 애도하였으며,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높은 탑 안에 가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잉태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때에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아침 햇살이 높은 탑의 창문으로 새어들어올 때 그 빛살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가 아들을 낳고 담무스(Tammuz)라고 이름하였다. 그 뜻은 “생명의 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담무스는 니므롯의 재탄생이라

고 주장하였다.

세미라미스의 이런 주장은 어찌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의 나타남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니므롯 곧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렇게 삼신(三神) 사상을 만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하는 길을 만들었다. 오늘날도 어떤 교단은 삼위일체 사상이 바로 이 니므롯 종교에서 유래되었는데 기독교가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 반대이다. 사단은 제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니므롯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삼위 일체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니므롯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종교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금송아지는 태양신의 아들인 담무스의 상징이라고 랠프 우드로우(Ralph Woodrow)는 말하고 있다. 니므롯은 태양신 또는 바알이라고 불렸으며, 그래서 불은 그의 지상의 대표물로 간주되었고, 그에게 예배드릴 때에 의식적 촛불에 불을 붙였으며, 고대 종교에 우상으로 만들어진 표상들 곧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사람 몸통에 물고기 꼬리의 형상), 바알브올(태양상), 기타 돌이나 나무들이나, 짐승들로 표상되었다.

이 종교는 당연히 영혼불멸론이 교리가 되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영혼 불멸론을 주장하고 나왔으니까. 그는 최초의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였으며, 그 속임수를 사실같이 보이게 하려고 자신과 자기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활동하는 것과 같은 귀신 소동을 벌리며 세상을 휘젓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먹는 것이 그들의 종교에 중요한 행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배로 하나님을 삼는(빌 3:19)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편만하다.

사단은 사람을 자기에게 속아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가 고안한 올가미는 틀림없다. 그것은 영혼 불멸론과 먹는 문제이다. 속죄제의 제사를 보고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의 피에 입맛을 붙들어 매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였다. 그 유혹의 내용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들어 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두 가지는 사단이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하여 사용한 전용 보도(寶刀)이다. 지금도 사단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입맛의 종이 되어 건강이 허물어지는 것도 모르고 먹어대고 있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이나 극락을 가는 것을 소망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 사단이 놓은 기초에 종교를 건설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 음녀 바벨론(계 17:1-5)은 그 유래가 바로 이 니므롯 종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간(根幹)이 되었고 마침내는 기독교의 허울을 쓰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창세기에 간단하게 니므롯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그 간단한

말씀 안에 니므롯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니므롯 종교의 영향을 벗어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결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려한 사단의 대리자로 세상에 군림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도 제사의 고기를 즐기려한 최초의 인간 군주였던 것이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번성하면서 니므롯이 국가를 건설하고 절대 군주가 되어 사람들을 통치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미 읽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기 위하여 일을 꾸몄는데, 그것이 바로 탑을 쌓는 것이었다. “온 땅의 구음(口音)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 11:1-4).

시날은 니므롯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창 10:10). 그러므로 탑을 쌓는 일을 주장하고 지휘한 장본인은 니므롯임에 틀림없다. 이미 니므롯 이야기를 말하면서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이용한 대로 니므롯이 하나님께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탑을 쌓자고 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은 탑을 쌓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이다.

둘째는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이다.

이 목적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효경(孝經)은 입신양명하여 부모에게 영화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도 후세에 길이길이 남기는 것이 소원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죽는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전 9:5).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인간 경배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인간 경배와 관련되어 있다. 니므롯은 이름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영혼불멸론과 맞아떨어져서 인간을 신으로 받드는 우상 종교를 만드는 효시(嚆矢)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흠어져 사는 일은 인간 숭배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집단으로 살면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일을 경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둘째 목적을 설정하게 되었다. 탑을 쌓는 일은 흩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구심점이 되게 하였고, 그 탑은 또한 우상 숭배에 바쳐지게 하였다. 우상 숭배는 인간 숭배의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로 사람이 천하여지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1-23).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다(시 49:20).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신 자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다. 바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정신인 것이다.

탑을 쌓는 것은 이런 정신들을 보이는 표상물로 집약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헌신했다. 탑은 올라가고 있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는 건축자들의 거처로 사용되었고, 다른 방들은 호화스럽게 치장되어 그들의 우상에게 바쳐졌다.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며,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사 42:8). 결코 하

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8:11).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의 반역을 굽어 보셨다. 그들의 반역이 또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반역의 탑 쌓는 일을 중지시키려고 내려오셨다.

탑이 점점 높아지자 건축 자재를 올려 와야 하였다. 일일이 오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연락할 사람을 두고 위에서 필요한 것을 말로 전달하여 밑에서 올려 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위에서 요구하는 것과 밑에서 올려 보내는 물건이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 더 이상 탑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 서로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오늘 전혀 다른 방언을 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사상도 일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대한 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반역적이어서 그 집단들이 거주하는 곳에 작은 탑들을 건축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건축된 지구라트(Ziggurat)일는지 모른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최근까지 발굴된 지구라트는 20여 개가 된다. “지구라트”라는 말은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굴된 고대 바벨론의 한 점토판에는 “지구라트의 건설

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구라트의 가장 큰 것은 바벨론 폐허에서 발굴된 것인데 그 밑변이 122미터 가량 되며 높이는 46.7미터 가량 된다. 7층 계단식으로 건축되었는데, 바깥쪽에는 벽돌과 역청으로 버팀목을 만들었고 안쪽은 진흙을 쌓았다. 각층은 다른 색깔들로 채색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알려진 7행성을 가리키고 있다. 맨 아래층은 검정색인데 토성을, 다음은 황색으로 목성을, 다음은 적색으로 화성을 이렇게 하여 맨 꼭대기에는 도시의 수호신으로 조디악(Zodiac, 황도〔黃道〕 12궁-황도대〔黃道帶〕에 12 성좌를 배치한 것)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단 숭배의 표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를 갈대아어로 “바불”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히브리어로 “바벨” 곧 “혼잡”이라는 뜻으로 이 탑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언어가 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집단으로 뭉쳐 살려고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의 정신 때문이다. 니므롯의 영향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우상 숭배가 있다. 그 우상의 제일 첫 자리는 항상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 니므롯의 화신인 것이다. 인간 정신은 온전히 혼잡 되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는 일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오늘날 소위 예수를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태양신 숭배의 잔재인 태양의 날을 예배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니므롯의 바벨론 정신이 얼마나 깊게 인간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방언은 바벨탑에서 시작하였다. 구음이 하나일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반역하였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언으로 인간의 반역을 중지시키셨다. 그러나 오순절 때에는 혼잡한 언어 때문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신속히 전파되게 하셨다.

그러나 바벨탑 이야기는 방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정신의 이야기이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금수와 버려지의 형상으로 타락시킨 이야기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이다. 마귀는 태초에 시조를 미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아직도 경배를 받고 있다.

마귀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 내려왔다(계 12:7-9). 사단이 하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통하는

길이다. 사람이 사단을 섬기는 자로 하늘에 이르면 사단은 자연스럽게 경배를 받는 자로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블” 즉 “하늘의 문”이라는 탑을 쌓도록 충동한 것이다.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면 사단은 쫓겨난 하늘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현대 문명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바벨탑을 쌓고 있다. 얼마나 찬란한 문화인가! 문화를 통하여 인간 찬양은 하늘에 미치고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은 오늘날 문화와 인류 정신의 핵심에 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주장되고 강조되는 만큼 인권은 더욱 유린되고 폭력이 난무하며 인명(人命)은 경히 여김을 당한다. 이권이 강조되고 생명이 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인권은 존중되고 생명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높일 때만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높아지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빌 2:8, 9) 주신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높아질 수가 없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그 일을 주도한 과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일이라고 말한 듯하다. 신문을 통하여 이 말을 읽을 때, “이 무리같은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15. 바벨탑 사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다”(창 11:6)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하여 하늘에 가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물론 되지 않을 일이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욥 4).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름이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달은 별과 별 사이의 천체임도 분명하다. 물론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이 아폴로 11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폴로 11호 사건에 들어맞지 않는가!

바벨탑이 높이 쌓아졌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났다.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멀지 않았다. “진실로 사람의 노(怒)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시 76:10).

오늘날 문명의 폐해는 그 편리한 것 못지 않게 크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명은 극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 언어도 통일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국제어가 되었다. 컴퓨터 때문에 언어 통일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이 높아지므로 인권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길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바벨 탑을 그만 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

한자에 형성화된 창세기

문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선인들의 노력의 덕을 단단히 누리며 사는 후손들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글자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글자들은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한국 사람으로써 우리는 문자에 관한 한 세종대왕의 공덕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민족이다. 원래는 언문(諺文)이라 하여 한자(漢字)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천한 글로 여겨졌으나 주시경(周時經) 선생에 의하여 한글이라는 합당한 이름을 얻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리 글자인 이 한글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소리들을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문자는 모양을 그려서 의사를 표현하는데서 시작하여 점점 글자 모양으로 발전해 나왔다고 말한다. 그렇게 발전하는 중에 고대 바벨론 문자로 대표되는 설형문자(楔形文字), 곧 쐬기 모양의 문자와, 고대 이집트 문자나 한자로 대표되는 상형문자(象形文字)로 발전했으며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라틴 문자로 풀 지어졌다고 한다. 한글이나, 라틴 문자는 소리글이다. 즉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적는 글자이다. 그래서 표음문자(表音文字)라고 한다. 그러나 상형문자는 표의 문자(表意文字)로서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적는 글자이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의 언어는 바벨탑을 쌓는 중에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구음이 같은 사람끼리 민족을 이루어 나누어졌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9).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혼잡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온 땅의 구음(口音)이 하나였다(창 11:1).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잃었고, 이번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통일을 잃어버렸다. 이날 이후로 세상에는 계속하여 민족과 방언을 따라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의 언어도 통일되고 영

원한 연합과 평화가 올 것이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현실이다.

이렇게 언어가 나누이면서 같은 구음으로 의사가 통하는 사람들 끼리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며 온 세상에 흠어지게 되었다.

이런 민족과 국가들 중에 중국은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다. 그들은 오래 전에 문자를 만들어 썼다. 갑골문자(甲骨文)라고 하는 상형문자인 표의문자이다.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자(漢字)이다. 한자는 철저히 표의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그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물건의 형상을 그려서 나타내었다. 그래서 산, 시내, 해, 달 등의 모양을 그려서 뜻하는 바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산 모양을 그리다가 山자가 되고, 시내 모양을 그리다가 川자가 되었다. 해 모양을 그리다가 日자가 되고 초생달 모양을 그리다가 月자가 되었다.

구체적(具體的)인 물체를 나타낼 때는 모양을 그려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추상적(抽象的)인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서 뜻을 나타내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복숭아 모양의 그림, 곧 심장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다.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다. 그러나 공통의 경험에 의하여 심장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피차 이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옛 중국 사람도 추상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을 때에 비록 추상적 사실이지만 이미 공통적으로 경험하여 이해하고 있는 사건에 의하여 그림을 그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에 착안하여 E. R. 넬슨(E. R. Nelson) 의사와 중국인 C. H. 캉(C. H. Kang) 목사가 **창세기의 발견**(*Discovery of*

Genesis)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하여 한자에 담긴 놀라운 성경적 진리를 발표하였다. 이 책을 출판한 컨콜디아(Concordia) 출판사는 그 서문에서 20세기 최대의 발견 중에 하나라고 치사(致辭)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모든 한자가 다 성경적 진리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초기의 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한자들을 분석하면 중국의 옛 조상들은 창조 사건과 선악과를 먹은 사실과 뱀이 유혹한 사실과 노아의 홍수 사실과 탑을 쌓은 것 등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자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가없다.

많은 예를 들 수는 없으나 대표적인 몇 글자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은 분명하여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 선(船) 자이다. 이것은 배를 뜻하는 주(舟)에 여덟 팔(八) 자와 사람의 입 곧 식구를 가리키는 입 구(口)를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 뜻은 여덟 식구가 탄 배[船]이다. 그러니까 주(舟)보다는 큰 배인 것이다. 이것은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아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글자가 아닌가! 바벨 탑 사건으로 구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모여 살게 된 사람들은 바벨 탑 사건을 체험하였고, 동시에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벨 탑을 쌓게 된 동기가 홍수 사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탑(塔)자도 이런 사건에 연유하여 만들어졌다. 이 글자는 사람[人]이 한[一] 말[口]로 연합하여[合] 흙으로 벽돌[土]을 구워 탑(塔)을 쌓는 데 말로 연합하였다[塔]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자는 바벨 탑을 쌓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담합(談合)하여 일한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탑(塔) 자 맨 위에 풀초[艹]자를 얹음

으로 탑 쌓은 사실이 시드는 풀처럼 헛것이었다는 사실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한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荅] ‘자, 벽돌[土]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1-4).

이 기록과 탑(塔) 자의 구성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이 글을 만든 그들은 바벨 탑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글자도 창세기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여실히 증거 한다. 우선 탐할 람(婪)자가 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두 나무[林] 밑에 여(女) 자 있는 글자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이미 뜻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실과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경고하셨다. 그런데 뱀의 꾀를 받아서 여자가 그 나무 밑에 가서 먹지 못하게 한 나무 실과까지 먹고 싶어 한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는가! 그것이 바로 탐할 람(婪)자인 것이다.

이 람(婪) 자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금지의 사실을 나타내는 글자를 생각하면 람(婪) 자의 사건이 더욱 실감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할 금(禁)자도 두 나무[林]가 있고 그 밑에 보일 시(示) 자가 있다. 즉 두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이 금지라는 글자[禁]가 된 것이다. 사실 탐하는 것이나 금지하는 것은 다 추상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두 나무를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리므로 나타내었다는 것은 이런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체험이나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여자를 유혹한 마귀를 나타내는 글자도 예텐 동산에서 있었던 유혹의 사실과 관련되어 형상화된 것을 보면 한자는 참으로 재미있는 글자이다. 귀신 귀(鬼) 자는 동산을 나타내는 전(田)과 사람을 가리키는 인(人)과 사사로운 것 혹은 비밀한 것을 뜻하는 사(厶)가 합하여 된 글자이다. 꼭대기에 있는 丿은 별(ノ) 자인데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그래서 이 귀(鬼) 자는 동산에 살아 있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비밀히 접근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예텐 동산에서 여자에게 유혹하는 마귀의 행동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가!

마귀 마(魔) 자도 같은 내용을 타나 낸다. 이것은 마귀[鬼]가 두 나무 밑에 숨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广은 “덮을 엄” 자인데 마귀가 두 나무로 자신을 덮어 감추고 사람에게 접근하여 유혹하였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귀신이나 마귀는 다 구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어난 사건을 구상화하여 글자로 만든 중국의 조상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

들이었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중국의 고대 전설에 의하면 사람을 만든 자는 ‘여와 씨’라고 합니다. 여는 여자인데 와는 여(女)변에 패(尨)를 한 글자로서 옥편에는 계집 이름 “패” 자로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전설을 읽으면 모두 “와”로 발음되고 있다.

이 발음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얼마나 흡사한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중국에서 이 이름을 빌려 갔다고 말하지만 여와는 의미가 없지만 여호와는 “자존자(自存者)”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발음을 바벨탑 후에 중국 방언을 하게 된 집단이 그들이 만든 글자로 적었다고 말하면 무리일까? 이것들이 모두 고대 중국인들이 성경의 창조 사건과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신령 령(靈) 자도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영도 사람에게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한자는 그런 영을 이런 복잡한 구조로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께서 하신 일을 형상화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령(靈)은 비우(雨) 밑에 입 구(口) 세 개가 있고 그 밑에 무당 무(巫) 자가 있다. 그런데 雨자는 하늘(一)에서 내려오셔서 물[水] 위[冫]에 운행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2)고 적고 있다. 그리고 冫는 세 입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표시이다.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는 데 삼위가 함께 일하신 사실을 표현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工]하셔서 두 사람[人人]을 만드셨다. 이것이 무(巫) 자이다. 결국 령(靈)은 하나

님께서 일하신 사실을 형상화하여 만든 글자이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영이시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요 4:24; 고전 15:45; 요 14:16, 17).

더 자세한 것은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초기 한자에 성경의 창조와 유혹과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들이 글자로 형상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상과 생활에 그것이 반영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놀라운 중국의 도덕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는 순(舜) 임금의 봉선제(封禪祭) 제문의 내용이다. 서경(書經)에 의하면 B.C. 2230년의 순(舜) 임금의 사적 중에서 순 임금이 “상제(上帝)께 제사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사를 봉선제(封禪祭)라고 했다.

하지 때는 북쪽 태산(泰山) 아래의 양산(梁山)이라는 작은 동산에 땅을 파고 땅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선(禪)이라 하고, 동지에는 남쪽 태산 위에 토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봉(封)이라고 했다.

공자는 중용(中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드리는 이 의식들은 인간들이 믿음에 의해 상제(上帝)를 섬기는 관습”이라고 기록했다. 이 때 제관(祭官)이 된 임금이 낭독하는 제문(祭文)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것은 경이로울 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성(五星)이 운행하기도 전, 태양과 달이 형체가 없고, 소리도 없어 빛을 발하기도 전에 이 땅 위에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노라!

아주 먼 옛날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 찬란한 영광만이 빛나는 하늘에 대 전쟁이 있었노라!

오, 우주의 통치자 신황(神皇)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처음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키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지으셨도다. 그분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천지와 모든 만물이 지음을 입었노라.

오, 제(帝-하나님)시여,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그 은혜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인 저는 우둔하고 깨우치지 못하여 당신의 무한한 은혜에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선은 그지없습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는 가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셔서 당신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당신의 사랑으로 지탱됩니다. 당신의 비천한 종의 마음에 당신의 선한 형상을 새기셨으니 그 은혜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주셨습니다”(James Legge, *The Nation of the Chinese Concerning God and Spirits* [Hong Kong: Hong Kong Register Office, 1852], 28, 29). 이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에베소서 1장의 기록과 일치한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성경에는 중국에서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시님” 땅에서 여호와와 위로를 얻을 자들이올 것이라고 말한다(사 49:12, 13). 많은 학자들이 “시님”을 중국으로 보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A)와 오메가(Ω)라고 한다(계 22:13). 이 말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이고, 곧 모든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문자의 첫 자와 끝 자로 표현한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예수님은 문자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없는 문자는 진정한 문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문자이다. 우리는 말씀과 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어문(語文) 생활에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리들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 같은 말과 글이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르게 듣고 알게 하는 존재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아브라함

사람들은 누구나 조상이 있다. 그 조상이 유명하고 훌륭한 후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중 앞에서 당당하다. 왕손들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그런 것을 피차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조상이 누구며 무엇을 했으며, 현재의 나는 그 조상으로부터 몇대 자손인가를 적어 전하는 것이 족보이다. 우리 민족은 족보에 대하여 관심이 특심하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요 가문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이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했으면 양반이라 하여 그 후손들이 뽐내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면 소위 “상놈들”의 삶은 그

야말로 비참 그것이었다. 완전히 동물 취급을 당하고 살았다. 그럴수록 조상의 위력은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조상을 찾는 일은 인류에게 크게 유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조상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인류와 사회에 복이 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면 그런 조상은 찾을 만하고 찾아서 그 복됨을 나누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훌륭한 후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훌륭한 조상이 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훌륭한 조상을 자랑하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6, 17).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한국인을 택하였으면 한국인이 선민이 되었을 텐데. 때때로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자. 그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혈통

이든지 예수를 바르고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 된 것이 우리에게 불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가 라는 질문에는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느 9:7, 8)고 계시한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대하 16:9).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이 감찰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충성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테라는 나들이를 가느라고 우상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돌보라고 했다.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집을 수호하는 우상이 하나 필요한데 ….”

아브라함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을 골라서 손님에게 전하자 그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다.

“당신 연세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는 쉰 살이고, 30년을 군인으로 있었네.”

“손님, 그렇다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든 것은 겨우 일주일밖에 안된 한 살도 안된 우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30년이나 군인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키는데 겨우 7일밖에 안된 돌 조각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손님은 화를 내면서 나가 버렸다. 조금 후에 나이 많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섬기는 우상을 훔쳐 갔기 때문에 새로운 우상을 사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상냥한 얼굴과 말씨로 “당신의 우상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군요”라고 말하자 그 여자는 화를 내면서 나가 버렸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 하나만을 남기고 가게 안에 즐비한 우상을 도끼로 모두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그 도끼를 남겨 둔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들려 놓고, 음식상을 차려 와서 그 우상 앞에 놓고 입 언저리에 음식을 발라 놓았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가게 안의 이 끔직한 모양을 보고 놀라서 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얘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기에, 음식을 만들어 줬지요. 그랬더니 이 큰 우상이 혼자서 그것을 다 먹으려고 다른 우상을 모두 때려부수던 걸요.”

“얘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니? 우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니. 그들은 물론 식사도 할 수 없고 전혀 움직일 수도 없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우상을 때려부수겠니?”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의 귀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로 아브라함은 그 조상에게 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성경 연대를 살펴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셈은 홍수 후에 500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셈이 390세였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러므로 이삭이 났을 때에 셈은 490세였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셈은 아직 565세였다. 그러므로 셈은 이삭이 110세가 되었을 때 죽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릴 때 그 10대조 셈을 사랑하였을 것이고 셈의 이야기를 통하여 창조와 홍수에 대한 생생한 사실을 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아브라함은 이런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를 열망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창 15:6)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셨다(롬 4:17).

그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상, 성질상 잘못되고 나쁜 것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전가(轉嫁)받아서 도덕적으로 성질상으로 선하고 좋게 변하도록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단에게 너무나도 깊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덕과 율법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한다. 그러나 창조와 부활에는 사람이 행할 몫이 전혀 없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되기 전에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행할 수 없고,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기 전에 죽은 상태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와 이름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길 외에는 존재도 생명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라 하시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길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여행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전할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들었을 때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연코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런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는 예수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한 번 지나가는 길목으로 여겼다. 그는 오직 나그네로 자처하였다. 반드시 가야 할 그의 본향에 이르기 전에 그는 길 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3-16).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고전 7:31)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일 2:15)는 권고를 따라 영원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이런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세상의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의 재물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 쓰지 못하는 것이요 자나가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쓸 수 있는 기회 동안에 사람들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벧전 1:17).

아브라함은 세상을 나그네의 여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상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더 굶은 풍진을 겪었으나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다. 실족한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요일 4:5). 그래서 그는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 곧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다. 곧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우리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본향인 영원한 본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 나그네길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원한 유업을 이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해도 좋을 것이다. 자랑할 만한 조상을 가진 것도 또한 복이 아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 비에 멸망했다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들에게 끔직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성경을 사실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닌 사실이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 특히 모세 오경의 기록들이 사실이 아니라, 꾸민 이야기라고 주장한 일은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이스라엘 역사 서설**이라는 책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후 오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앗수르 왕 사르곤(사

20:1)이나,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 벨사살 등이 다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창작된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공격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사르곤이나, 벨사살을 그 나라 역사책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벨하우젠의 가설은 한낱 헛된 가설뿐임이 증명되었으며, 사르곤이나 벨사살이 엄연히 역사에 등장하여 그 나라들을 통치한 왕임이 땅 속에 묻혔던 고대 기록물인 점토판이나 비석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고 그들이 통치한 사실을 확인하므로 성경의 기록이 세상 역사책의 기록보다 더 역사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렇지라도 성경의 기록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이 고고학의 발굴에서 확인된 것이다. 1975년경에 한 고고학 발굴 팀이 시리아에 있는 에블라(Ebla)를 발굴하였다. 그 발굴에서 옛 에블라 제국 도서관을 발굴하게 되었고 많은 문서를 얻었는데, 그 문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이름이 성경의 차례와 같은 차례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성경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차례로 나타난다(창 14:2 등). 그리고 심지어는 고모라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같은 철자로 쓰인 것까지 발견하였다고 한다. 성경에 기록된 고모라 왕의 이름은 “비르사”이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부패한 고대 도시국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고고학에 의하여 밝혀짐으로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도시국가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고학의 기록들은 그 도시들이 경제적 강국인 것을 보여주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운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창 13:10; 겔 16:49). 고고학 문서에 의하면 그 도시들이 사해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요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죄악적 쾌락을 탐했던 것 같다. 인간은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선을 지향하기보다는 육체적 쾌락을 찾아 탐닉하는 죄악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 같다.

동성 연애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은 공공연하게 외치면서 동성 연애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성 연애가 끊어져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숨어서 즐겼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 개방 시대가 되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 보호 속에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소돔 고모라 때에 이미 있었다.

소돔의 결정적인 죄가 동성 연애였던 것을 성경에서 밝히 읽게 된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탐사하러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을 때에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어 우리와 상관하게 하라고 아우성들이었다(창 19:5). 상관한다는 말은 성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이다. 이 일로 천사들은 소돔의 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유 7)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은 동성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은 유전 인자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생리적인 것이어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학적 생리학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필자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용훼(容喙)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생리적인 욕구라도 간음은 간음인 것이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 27).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상의 형편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7:28).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와 같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연애자를 영어로 sodomite라고 한다. 곧 소돔적이라는 말이다. 요즘 세상은 정말 소돔적이다.

또한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또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 16:49). 소돔은 그 풍족한 것 때문에 교만하였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주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대신에 동성 연애를 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자신이 부요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인이 자기 배가 부르면 종 배도 부른 줄 안다는 우리의 옛말은 사실이다. 요즘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부모들의 시대

의 가난을 벌써 이해하지 못한다. “6·25 전쟁 때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단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왜 그랬어요, 라면이라도 삶아 먹지”라고 대답하는 아들은 풍요 속에 그 가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소돔의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의 정신이 감각적 쾌락으로 치달으면 한없이 동물적이 된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적일 수만은 없다. 모든 이성 없는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적절한 제동장치가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대개의 경우 자연적으로 금식한다. 그러나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됨의 특권이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면 동물보다 훨씬 더 동물적이 되어 제동 장치 없이 쾌락에 방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동물보다 더 동물적이 된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벧후 2:12)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다(엡 4:19).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는 이런 인간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동물적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물 교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세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시

대에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소돔 자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동정심이 고갈되고 악에 대하여 둔감하고 쾌락 지향적인 정신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소돔이 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소돔을 없애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소돔은 영원한 불의 형벌 곧 지옥불의 형벌로 없어졌다. 이것은 장차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표본이다(유 7; 벴후 2:6; 겔 16:50). 우리 시대가 아니 이 세상이 소돔의 본을 답습하다가 소돔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우리 개인이 또한 소돔의 길을 따라가면 역시 소돔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슬픈 한 장면이다. 많은 슬픈 일들이 역사에 얼룩졌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인성 깊이 도사리고 있는 파멸의 씨앗이 어떻게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그 결국의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오해 할 수 없는 경고로 계시의 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고고학에 의하여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함으로 이것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음을 20세기 후반에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 한 번 동물적 결과에 이르게 하는 비극이 될 것이다.

소돔 같은 시대에 우리 자신은 소돔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돔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루트

세상에는 비참한 일들이 많고 전해 오는 비참한 이야기도 많다. 부푼 여행의 꿈을 안고 혹은 비즈니스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TWA 기에 올라타고 이륙한지 잠시 후 공중 폭발과 함께 순간에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다 비참한 일들이다. 우주 탐험의 큰 꿈을 안고 장도에 오르다가 공중에서 산화해 버린 우주인들의 모습, 폭우에 산사태로 하루 저녁에 매몰되어 목숨을 잃은 젊은 국군 장병들, 그 청운의 꿈을 불사를 겨를도 없이 순직한 용사들의 일도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 속에 묻혀서 사람의 기억의 먼 뒤안길

로 사라진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고두고 비참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면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롯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다. 롯의 모습에서 인간들의 현실 추구의 얄은피나, 위기 앞에 언제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런 결과로 야기된 비극의 역사적 연속을 보게 된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아들이다.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창 11:28). 그래서 그의 아들 롯은 할아버지 데라 밑에서 막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자랐다. 혹시 아브라함이 데라의 맏아들이라고 생각해 오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다. 성경은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11:26). 그러므로 맏아들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이미 60세였다. 그러므로 롯은 아브라함보다 약간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숙질간은 참으로 친밀했고, 할아버지가 별세 한 후에 나이가 비슷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인간의 친밀함을 나누었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관계상으로는나 연령상으로는나 롯보다 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란 롯에 대하여 지극한 정을 주었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고 한집에 살기에 살림이 커졌을 때에 그 두 가정의 가족을 돌보는 고용인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일로 두 사람의 정의(情誼)에 손해 보기를 원치 않

은 아브라함이 각각 독립해서 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창 13:8-12).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롯이 현실적인 욕심이 많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아저씨가 먼저 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다 택하겠습니다. 당연한 순서지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타난 장면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는 얼씨구 에덴 같이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택했다.

롯은 점점 소돔 성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며, 소돔 주민들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창 19:10). 당시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롯은 어느새 소돔의 지체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돔에서 지체가 높아지는 것은 소돔에 익숙해져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 롯은 그의 인격이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보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브라함의 감화가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습관을 따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 그날 그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은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급히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는 그들이 천사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동안 배운 좋은 감화가 이런 습관을 형성한 것이다. 그가 천사를 영접한 것은 곧 그의 구원을 영접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소돔에 와서 사는 동안 범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감화에서 조금씩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전 15:33, 34). 롯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무리들이 롯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손님으로 온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욕박질렀다. 집단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아우성이었다.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간절한 롯의 열망은 차라리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이 남자들 대신 내어 주겠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것이 당시에 풍습의 일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태도에서 롯의 도덕관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를 짐작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까? 소돔의 영향을 확연히 읽게 하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롯에게 행패를 부리려 했다. 드디어 천사들이 개입하고 동성 연애에 굶주린 폭도들은 장님이 되면서 그 도시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현실에 집착하여 그 현실을 추구하던 롯의 선택의 어리석은 결말도 함께 이르러 온 것이다. 천사는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롯으로 인하여 그의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는 천사들의 분부대로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소돔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나 함께 도망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롯이 평소에 농담을 즐겼던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소돔 사람들이 태도와 인격에 동화되고 있는 롯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이 위급한 때에 생명의 존망이 달린 사실을 전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라면 평소에 그의 언어가 농담이 짙었던 것이 틀림없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 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벧후 2:7, 8).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는 소돔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소돔에 깊이 집착했다고 생각하게 한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롯이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극이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몸만 그 도시에서 빠져나가야 하였다. 가면서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였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는 담긴 의미가 아주 많다. 세상적인 욕망을 좇는 마음을 완전히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롯은 그가 갈곳을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스스로 소돔 들을 택하여 분명한 미래를 보고 나아갔으나, 그 결과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반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다(히 11:8 참고). 우리가 보는 미래는 기대대로 된다는 보증이 없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가 떠난 소돔과의 거리와, 앞서 뛰는 롯과의 거리는 어느 쪽이 가까웠을까? 분명 롯과의 거리가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전히 소돔에 있었다.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가 실재(實在)한 곳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신다. 세상에 처하여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이다.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 본 것은 롯의 확신 없는 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단호한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도 신념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롯은 소돔 떠나는 일에 단호

하지 못했다.

롯은 소알 성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두려워서 산으로 피하여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세상과 두절된 상태로 칩거하게 되었다. 화려한 도시에 익숙하고 소돔의 문란한 생활을 목도한 그 딸들, 어쩌면 그 천사들 대신에 소돔 남자들에게 형편없이 유린당할 뻔했던 그 두 딸은 고립된 산중에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만고의 불륜을 계획하여 아비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벤암미이다.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그 족속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어쩌면 지금도 아랍 족속에 동화되어 중동의 화약고(火藥庫)로 그 역할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롯의 사적의 비참한 모습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아직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 활동한다. 우리의 현장에 대하여 침잠(沈潛)할 때이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불리는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가 75세였다. 이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 그의 집에는 가신(家臣)들이 있었고 380인의 일꾼들이 있었다(창 14:14, 15). 아브라함의 세력을 짐작할 만한 무리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로이 그의 아저씨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떠난 후에 마침내 소돔 성내에 들어가서 유력한 자가 되어 살고 있을 그 때에 그 지경에 전쟁이 있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왕들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 소돔 연합군이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때에 롯도 포로 되어 갔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일꾼들과 가신들과 그가 동맹한 이웃의 도움을 얻어 시날 왕의 연합군들을 기습하여 쳐부수고 롯과 그 외의 포로들을 구출하여 왔다. 그러나 이 일로 하여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싸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외로운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만일 시날 왕의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그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다. 롯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그는 기습 작전을 하였으나 만일 정면으로 시날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면 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니라”(창 15:1).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말씀에 감사하였지만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요즘은 이런 사상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멸시를 당하였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상급이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 그는 곧 그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후사를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당시의 풍습을 좇아 자기 집에서 오래 기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이겠다는 의논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사람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

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4, 5)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은 것이다. 그에게 일점 혈육이 없고 그의 나이가 일흔다섯이 되었으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과연 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의 나이 일 백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웃었다. 기뻐서 웃은 웃음인지 하나님이 75세에 한 약속을 이제 기억하셨다고 생각해서 웃었는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고 웃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대답을 미루어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웃은 것 같다.

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틀림없이 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도록 말씀하셨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신가! 과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이었다. 웃음은 그 가정에 소망을 드러낸다. 아들이 없는 가정에 소망이 없었으나 이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은 가정에 웃음을 솟아나게 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방문하신 기록이 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에 들르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한번 더 아들의 출생을 약속하신다. 이때는 그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신 후에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름까지 지어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웃음의 아들을 주실 것이 확실한 것이다. 사라는 이삭을 젖 떼 때가 되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 21:6). 과연 이삭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재미있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삭이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분부를 내리셨다. 이 약속의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하고 곤혹스러웠을까? 긴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로 갔다. 아마 그는 앞서 걸었고 아들은 뒤를 따랐을 것이다.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그런데 뒤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 왔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으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 예비된 양이 바로 이삭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드디어 제단이 준

비되고 나무를 벌여 놓은 후에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잡아 묶으려고 했을 때, 그 때 20세의 혈기 방장한 젊은 이, 그리고 120세나 된 노쇠한 아버지, 얼마든지 완력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웃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자기를 묶는 아버지의 손이 심히 떨리는 것을 보고 자기를 묶는 일을 스스로 도왔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가 준비한 양이 있었고 그는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오게 되었다. 부활한 것이다.

이삭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생애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삭은 독생자로 불렸다(히 11:17). 이 말은 원어로도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한 말과 꼭 같은 말이다. 이삭은 집에서 삼일 길을 갔다(창 22: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 삼일을 표상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 산 제단까지 자신을 불사를 나무를 등에 지고 갔다(창 22:6). 이것은 예수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표상 한다. 그리고 제단에 묶였다가 다시 놓인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표상 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 11:17-19).

이삭을 번제의 제단에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늙은 아버지의

하는 일에 반항하지 않고 순복한 것은 전적으로 이삭 자신의 희생이다.

이삭의 이런 희생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표상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는 웃음을 찾았다.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후에 늦도록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권고하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다.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가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 야곱은 집안에서 가사를 돕는 일에 재미를 붙였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일찍이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창 25:23).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내려 주려고 했다. 그는 편애에 빠졌고 장자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하

나님의 계시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자가 된 것이다.

첫째로 그가 사냥한 고기를 탐식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각이 둔해졌기 때문이었다. 육식은 뇌(腦)를 둔화시킨다. 청년 시절 그렇게 예민했던 계시적 감각이 음식을 바르게 먹지 않으므로 둔하여 말씀을 옳게 분별 하지 못하게까지 된 것이다. 한번 진리를 바르게 분별 하면 영원히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그것을 갈고 닦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뇌(腦)는 맑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된다. 이삭은 이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 탐식 때문이었다.

둘째로 그는 전통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전통적 관념, 흔히 말해서 사회적 통념은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을 묶어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의식적 의식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의례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바른 것이 제시되어도 이 통념에 의하여 무시하고 핍박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루터가 핍박을 받았고 갈릴레오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라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무의식인 통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한 것이다. 탐식으로 인하여 이 통념에 더욱 쉽게 빠진 것이다. 비록 속이는 계락을 썼으나 그의 아내 리브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지 않도록 한 셈이었다.

이삭은 그가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심히 두려워했

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려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으랴!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충성하였던 젊은 시절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을 것이다.

이삭은 비록 아들을 멀리 보내는 섭섭함을 감수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빠져들 때에도 이런 일로라도 바른 길을 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해야 한다. 오늘날 성경의 여러 내용이 전통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통념으로 인하여 잘못 이해되고 교회마다 그것을 또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자체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전통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나 둔하여졌다. 게다가 음식물 또한 얼마나 잘못 먹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에 너무 둔해져 있다. 이삭의 생애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고 밝게 웃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도 웃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성명 ○○의 사람 이름

서양에도 성명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동양에서는 성명 철학이 있어 인생의 운명이 그의 이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다.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하여 어른들을 찾아가 하면 많은 경우는 성명 철학관을 찾는다. 나는 청명 철학관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작명 철학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름을 지을 때에 듣기에도 좋고 뜻도 좋고 또 아이들 사이에 좋지 않은 별명이 되지 않도록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성명 철학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나 지금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 두기로 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사랑을 들어보려고 한다.

성경에는 성명 신학이 있다.

성경에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의 존재와 지위와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어찌면 동양의 성명 철학이 이런 성경의 사상에서 번져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전 9:5).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는 말은 죽어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 반대로 이름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과 존재를 얻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명령했을 때 모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출 3:13). 이 질문의 실질적인 내용은 당신의 존재와 신분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말하시기 전에 신분을 밝히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고 대답하신 것이 신분을 밝히는 대답이다. 그 후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름은 그의 신분과 존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그 존재의 외연(外延)이다. 이름이 없으면 사물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존재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의 이름이 온다고 표현한다.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백

21. 성경의 사람 이름들

백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사 30:27), 이 표현은 여호와 자신과 그의 이름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름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의 묘사는 그의 진노, 그의 입술 그의 혀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름은 곧 그의 존재와 생명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계시적 인물들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렇고 하와라는 이름이 그렇다. 하나님의 구속(救贖)의 역사(歷史)를 계시하는데 등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救援)의 역사(役事)를 나타내는 데 필요하여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이런 계시적 의미들이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 지면을 빌어 이런 이름들의 구속사적(救贖史的) 의미를 다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 10대까지의 족보와 셈의 후손 10대까지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의미를 적어 보려고 한다. 이 10대(代)의 걸친 10명씩의 이름은 그 의미가 미묘하여 흥미를 돋구기 때문이다. 이제 이름들과 그 한국말의 뜻을 보자.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 명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이름과 그 뜻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아담	사람
셋	대신함
에노스	사람
게난	정해진 거주지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함
야렛	내려옴
에녹	시작함, 순종하는 자
므두셀라	싸우는 자, 무장을 갖춘 자
라뻬	정복자, 강장한 자
노아	위로자, 안식

이 이름의 뜻을 차례로 연결해 보면, “사람을 대신한 사람이 정해진 거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내려와, 시작한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고 안식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과연 예수께서는 아담을 대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죽게 된 그것을 대신 죽어 주시므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고전 15:45). 그래서 사람 곧 아담을 대신하여 세상에 오신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분은 정해진 거주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고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사단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나(계 12:7-9),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아담을 꺾어 그의 수중에 떨어뜨리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사람되어 오셔서 시작된 싸움을 싸워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당신 안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시므로 영원한 위로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

21. 성경의 사람 이름들

신 것이다.

이 이름들이 참으로 미묘하지 않는가! 사람이 타락하여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족보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구세주의 하실 일이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그 조상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자!

또한 11장의 셈부터 아브람까지 10개의 이름도 그 뜻을 풀이하여 연결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난다.

셈	명성
아르박삿	성채(城砦)
셀라	내어 보낸 자
에벨	건너간 자, 넘어온 자
벨렉	나누이다, 분열
르우	친구
스룩	영키어 감긴 자, 포도 넝쿨
나홀	멀시, 콧김
데라	신랑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이것을 차례로 연결해 보면, “명성 있는 자를 성채에서 내어 보내어 건너와, 나누인 것의 친구가 되어서 영키어 감겨 멀시를 받은 신랑이나 존귀한 아버지가 되었다” 고 연결되지 않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경험과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예수님은 신성의 제 이 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창조주시오 (요 1:1-3),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명성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참으로 명성 있으신 분이 하늘 성채에서 인류를 위하여 내어 보내지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나누어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되 사람과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히 2:14) 사람들과 떼어 수 없이 영키어 감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는가(사 53:1-6). 세상에 교회를 일으키시어 그 교회의 신랑이 되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죽기까지 멸시를 당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존귀한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사 9:6).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름은 대대로 존경을 받는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고 세종대왕이 그렇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대대로 욕을 먹는다. 이완용이 그렇고 연산군이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몇몇 사람들 즉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 그 이름이 불려지다가 그가 죽으면 과연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기억되어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보내어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권

21. 성경의 사랑 이름들

능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이루고 신이 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0:20).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눅 12:8; 마 10:22).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그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말 3:16) 생명책에서도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실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엡 2:5, 6; 히 12:22).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삼판 날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계 3:5; 시 69:28)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아름다운 이름을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활을 계속 고집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일이며 그것은 곧 그의 생명과 존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뜻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름이 많이 있고 그 이름의 이런 역할을 알게 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영원히 보존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야곱과 에서

성경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도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이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보편화된 흥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아 우인 야곱이 모태에서 나올 때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은 경쟁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사랑 받기 경쟁을 먼저 벌인 것 같다. 에서는 썩썩한 성격을 타고났으며 야 곱은 안존한 성격을 타고났다. 아버지는 썩썩한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안존한 야곱을 사랑했다.

이들은 외모부터가 서로 달랐다. 에서는 온 몸이 붉고 털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뜻은 “발꿈치를 붙드는 사람”이다.

그들의 성격대로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업으로 삼았고 야곱은 집사람이 되어 양을 치며 어머니의 가사를 도왔다.

썩썩한 사람이 대체로 그렇듯이 에서는 활발한 성격이 있었고 야곱은 꼼꼼했다. 야곱에게는 동시에 출생했는데 장자의 자리를 놓친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었다.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차자(次子)이기 때문에 그 영예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음을 탄식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려주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려주는 일로 형제간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삭에게만 이야기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처리하도록 기대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다. 쌍둥이가 태중에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복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듣지 못한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만일 그랬다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위하여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하여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붉은 죽을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틀림없었던 것 같다.

그날도 에서는 사냥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 그날 사냥에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심신이 피로한 채 집으로 돌아 온 것 같다. 그 때 야곱은 붉은 죽을 쑤고 있었다. 34절에는 “팔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은 “아다샤(³*daśah*)”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죽”이라고 하였는데, 원어로는 “나지드(*nāzîd*)”로서 “물에 끓인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에서가 그 아다샤로 쑤 나지드를 보고 “내가 심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에서가 흥분했던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고 외쳤다. 너무도 시장했었던 모습을 반영한다.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식욕이 요동쳤을 것이다. 그는 잠시 음식물의 유혹에 이성을 잃는 흥분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생각이 뇌리에 언제나 서려 있는 야곱은 이 기회에 형의 시장기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죽의 임자는 자신이 아닌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자. 그는 얼른 대답했다: “형의 장자

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마 평소에도 왕성한 식욕이 있었을 것인데 시장기로 인해 식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에서는 흔쾌히 대답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어놓고 붉은 죽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 확실히 하였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명분뿐이 아닌가? 명분을 준다고 태어난 순서가 바뀔 이가 없지 않는가? 그것은 물건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말 한마디일 뿐이다. 지금 말로 준다고 대답해도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약속빠르게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창 25:34). 이 일로 하여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즉 “나지드 아돔”을 먹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에서의 후손으로 형성된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칭호에는 다분히 모멸적이며 귀한 것을 식욕을 위하여 팔아 버린 사람의 후손이라는 암시가 들어 있다.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하여서도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에서는 명분 따위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명분이 곧 실리였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연약할 때를 이용하여 매수하였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권리를 매수하는 일은 바른

일이 아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야곱의 이 행동은 마치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팔라고 유혹한 시험의 광야의 마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서가 아니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히 12:16) 되었으나 주님은 식욕을 극복하시고 식욕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 예로부터 먹는 것은 가장 강한 유혹의 도구였다. 어린이 유괴범들은 먹는 것을 인용한다. 사람을 손아귀에 사로잡는 것도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쉽다.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이 그래서 배급 제도를 도입했는지도 모른다. 파블로프 박사가 레닌에게 바로 그렇게 조연했다고 한다. 지금도 세상은 식욕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하였던 것처럼, 아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으며 이 유혹에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 뉴스타트는 이런 사단의 조종을 깨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욕을 극복할 줄 아는 자는 다른 유혹도 극복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진리를 식욕으로 인하여 둔하여진 뇌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도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 같은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의 연약할 때를 인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아마도 야곱은 명분이 실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는지 항상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방법이 생각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서려 있지 않았을까?

이미 이삭 이야기에서 본대로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서 만져 보고 아들을 구별할 정도가 되었는데 어찌면 이삭이 육식을 좋아하여 당뇨병이 생겨서 당뇨로 그가 실명했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취시키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되는데는 남편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지 않게 하려는 아내 리브가의 용의 주도한 속임수의 배려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에 남편을 속인다는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계획을 하였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종교로 말미암는 전쟁은 다 그들의 신의 뜻을 받든다는 신성한 이유로 가장 잔인하게 자행되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 인간의 사악함은 사악한 대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인간의 선함은 선한 대로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야곱이나 리브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줄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 가정은 비극을 맞아야 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하여 들어왔을 때에야 먼저 복을 받아 간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아서 심히 두려워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려 했던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미련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행한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두려움이 어떠했겠는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나 그 방법에 인간의 모략이 들어감으로 인간에게는 시련과 비극이 닥친 것이다.

야곱은 형과 관계된 일련의 사건으로 호된 고난을 겪게 된다. 그는 부모를 떠나야 하였고 형과는 원수가 되어야 하였다. 에서는 기회를 봐서 아우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버르고 있었다. 형의 분노가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 야곱은 피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쌍둥이 형제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 그 조화가 깨어지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험을 보여주면서 인류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또한 각자의 욕망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려 할 때, 형제도 원수가 되는 모습을 그려 주고 있다. 인간이 자기의 꾀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해도 오직 스스로 고난을 당할 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적 계획을 성경 말씀의 지시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도 평강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그려 주고 있다.

우리는 에서 같은가? 야곱 같은가? 이삭 같은가? 리브가 같은가? 누구 같든지 간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네 사람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든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임을 깨닫는 일은 지혜가 될 것이다.

요

성경 욥기의 시작에서 주인공 욥의 입지(立地)가 간략하지만 사실적(寫實的)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는 우스 땅에 사는 의인이며,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다. 그의 부유한 상태를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여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였다는 것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다복하였다. 아들 7형제, 딸 3형제, 모두 10남매를 두었으며, 아버지인 욥을 비롯하여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으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재난이 닥쳐왔다. 하루 사이에 그 많은 재물이 약탈

당하고 10남매가 함께 모여 잔치하는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런 재난에 대하여 누가 감히 당사자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욥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간 말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욥의 상태를 그 현장에 있는 것만큼 느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그 처참하며 곤고한 모습을 십분 짐작할 수 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지나는 그 기간의 고통은 위로 자가 오지 않고 지내는 일주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처절하지 않았을까?

그 후로 욥의 괴로운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고난 당하는 자를 앞에 두고 위로보다는 성토(聲討)하는 일이 시작되며 욥기의 인생 철학 드라마는 절정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인생들끼리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연극 마당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를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욥의 고난의 배후를 알게 된다. 고난의 까닭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욥기는 계시하고 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8:14).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은 세상을 즐겁게 살는지 몰라도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인가? 욥의 고난이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의 모습인

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철저히 순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질투와 분노가 어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세상에 사는 인생은 결코 인생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보다 더 강한 세력들이 인생을 두고 다투는 배후가 있는데, 인생의 복리와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것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괴롭히므로 하나님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세력이 인생을 볼모로 하여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지!

욥기는 인생 배후에 있는 이 세력들의 활동의 성질을 보여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편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다.

욥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직접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욥기는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책명이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하여 별명을 만들어 붙이기를 즐겨하는 것 같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하며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말한다.

이처럼 욥을 인내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말한다(약 5:11). 욥에게 닥친 환난과 그의 참음은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귀감(龜鑑)이 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욥의 인내보다 더 크고 끈질긴 인내는 욥기 배후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우리 주의 오

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후 3:15). 하나님의 인내와 그 자비하심이 욥기에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다.

학자들은 욥기를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말한다. 특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고(人間苦)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글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욥기의 내용은 인간의 도덕적인 선과 의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대한 종교성의 허구를 폭로하는 것이다. 욥의 세 친구는 권선징악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다. 욥 또한 그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욥은 회의(懷疑)에 빠진다. 자기의 도덕적인 선행에 비추어 자기에게 임하는 고난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깊은 회의에 빠지며 자기의 도덕적 선과 의와 권선징악 사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철저히 권선징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의인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두시는 무관심한 하나님이신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인가? 욥은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까닭 없는 재앙이 없다는 권선징악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며 비수로 찌르듯 하는 친구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욥 16:2)라고 말한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전에 정죄하고 있었다. 도덕적 종교가들은 사람이 재난에 처했을 때에 “누구의 죄로 저런 고난을 받는가?”(요 9:1-3)라고 질

문하면서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기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보다 의인으로 생각하기를 즐겨 한다. 욥의 세 친구도 본의 아니게 그런 사상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모든 도덕적 종교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장 현실적인 상태에 처하여 욥은 대답할 말이 궁하였다. 다만 자기는 재앙을 받을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을 강변할 뿐이었다. 그러면 의인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느냐고 묻는데는 또 대답이 궁하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자기 하나님이 무엇인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해가 아니라 욥의 오해요 인간들의 오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성경의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 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

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4-48).

하나님이 권선징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며 원수를 사랑하여 그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양지차이로 다르다. 욥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測量〕달아보며 평가하고 있었고, 세 친구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라고 못 박아 놓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었다.

오늘날 도덕적 종교가들이나 도덕적 사상에 묶여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은 욥기에서 주는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네 사람의 권선징악 사상 공방전을 지켜보고 침묵하던 젊은 방문자 엘리후가 드디어 답답한 가슴을 열고 말을 쏟아 놓는다. 그는 세 친구의 정죄 일변도의 논리를 나무라고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하는 자세도 나무란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일말의 빛을 전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권선징악 사상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누구도 욥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사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위하여 나타나셨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

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 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욥 38: 1-3).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논의는 모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사 45:15)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논의는 전적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다. 권선징악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도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도 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면모들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친히 당신을 계시하신다. 욥기 38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욥의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없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의문을 풀게 된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욥에게 대답이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에서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살며 기동하며 있다”(행 17:28)는 것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욥기 38장 이후에 계시된 하나님의 대답은 도덕적 선악관에 의

한 대답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창조와 존재에 대한 대답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므로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존재를 지속시키시므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8장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에 대하여 욥에게 물으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準繩)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욥 38:4-6) 그리고 계속해서 땅위에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에 대하여 말하고 천체들의 운행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은 믿어야 한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요,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는 생명 때문이다. 인간의 선행도 도덕도 다 이 존재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죄와 악은 마침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대로 존재하도록 조치하신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 존재와 생명을 회수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 외에 더하실 것이 없다(사 5:4).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거절한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생명을 창조주께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감사함으로 보전하기를 소원한 사람들과 예수께서 오셔서 재창조를 위하여 치르신 모든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

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권선징악적인 사상과 도덕적 관점에서만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개한다. 비록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창조와 존재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것을 믿고 받드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형통할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욥의 의문은 창조와 존재의 참된 근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해소되었다. 그는 고백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1-6).

욥은 그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품었던 회의에 대하여 회개한다. 그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본 것이다.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그 주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도덕적, 권선징악적 종교 사상이 판치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창조와 구원에는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나 악행이 끼여들 자리가 전

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 곧 창조와 보존과 구원의 행위를 믿을 때만 사람은 참으로 의인으로 여겨지며, 인간을 고난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시의 글인 것이다.

오늘날 아니 옛날에도 세상을 휩쓸고 있는 종교 사상은 권선징악이요 도덕적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도덕성을 포함하여 그 보다 훨씬 근원적인 곧 존재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창조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존재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 곧 재창조와 존재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길게 써 온 성경의 사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의 종교의 바른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는 바른 주소를 찾아서 바른 신앙에 정착하게 되기를 바라며 연재를 마친다. 읽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 را 드린다.

레헬과 레아

창세기의 후반부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야곱 가족 이야기는 야곱의 결혼에서 비롯된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돌아올 기약 없이 외삼촌 집으로 떠난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와서 빈 들판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마도 기원전 1700여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조밀하게 사는 마을들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시간에 마을을 찾지 못하고 밤은 깊어오고 그는 빈들에서 돌을 베개로 하여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라!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딱딱한 돌을 베고 땅바닥에 누운 그에

게 쉽게 잠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아!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엄청난 광경이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서부터 사다리 하나가 내려와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까지 닿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이었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2-15). 야곱이 황홀한 중에 눈을 떠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의 하나님도 그 집에 계시고 자기와 먼 거리에 있는 줄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에 본 그 사다리 위에 서셔서 야곱 자기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는 너무 감격하였다. 그래서 그는 외쳤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6, 17). 그래서 그는 그 꿈꾼 곳 이름을 “벧엘”이라고 고쳐 불렀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은 죄를 짓고 그의 이름의 소망적인 뜻,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즉 뒤에서 붙들어주소서’(아버지 이삭이 이런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야곱”에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은 그 의미를 잃고 ‘뒤에서 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만 드러난 모습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거기까지 따라와서 만났다는 것은 그에게는 여간 큰 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誓願)을 드렸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18-22). 즉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야곱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기도했다. 일차적으로 아비 집은 이삭의 집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야곱의 행적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의 행로를 표상적으로 보여준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에덴 동산에 곧 하나님의 집(겔 28:13)에서 쫓겨나서 황량한 루스 벌판 같은 세상에 드러눕게

된 것이다. 야곱이 드러누워 자는 모습은 인간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셨다(요 11:11-14). 그러므로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자는 것은 죽은 인류의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다.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에덴을 떠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따라 오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이 지구를 인류에게 영원한 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야곱의 이 사다리 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히셨다(요 1:51).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다. 야곱은 꿈에 사다리를 보았다. 사다리로 표상된 하늘 계단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다. 사다리는 계단 간격이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 한 계단씩 오른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사다리에 의하여 사람의 발걸음이 통제되게 되어있다. 하늘에 가는 길 즉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길은 사람에게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길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과연 구원은 사람 자신의 걸음걸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사다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폭(步幅)이 넓은 사람이나 좁은 사람이나 사다리의 계단의 폭은 그 걸음걸이를 통제한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이다. 예수님이 마련해놓은 길, 그 사다리의 계단에 의하여 우리는 하늘

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되어 죽은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외삼촌 동네 가까이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에 대하여 물었다. 그때 마침 라반의 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로 나오고 있었다. 목자들은 그 여자가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야곱은 달려갔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창 29:10-14).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의 일을 하였을 때에 라반은 공으로 일시키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삯을 정하고 일하라고 말하면서 그 삯을 야곱에게 정하라고 말한다. 야곱은 일하는 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다. 맏딸 레아는 안력(眼力)이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 근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라헬은 그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미인을 더 선호하는 것은 동일하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 값으로 7년을 일하기로 하였다. 문화적으로 이러한 풍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역사적 진실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야곱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 1925-1941년에 누지(Nuzi)에서 발굴된 수천 개의 점토판(粘土版)에서 확인되었다. 누지는 지금 이라크의 키르쿱(Kirkuk) 주와 이란의 쿠르디스탄(Kurdistan) 접경에 있는 지역이다. 그 점토판 중에 에쉬nun나(Eshnunna)라는 법전(法典)에 가난한 사람이 어떤 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집에 가서 일정한 기간 일하여 값을 치르고 그 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야곱이 바로 이러한 에쉬nun나 법에 의하여 7년을 일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그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성경은 말한다. 아마도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지극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결혼식 초야에 라반은 맏딸 레아를 야곱의 신방(新房)으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그 속임수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분이 나서 씩씩거리는 야곱에게 라반은 맏딸을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였다고 변명을 한다(창 29:27-30). 누지 법전에는 이런 조문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어쩌면 이것도 당시 풍습에서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라반은 야곱이 결혼 예식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았다. 아무튼 야곱이 그 문제를 더 이상 따지는 대신에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레아를 위하여 7일간 잔치 기간을 채운 다음 라헬에게 다시 장가들고 그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일하라는 것이었다. 라반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성실히 일하는 야곱의 노동력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술수였을 수 있다. 유대인의 미드라쉬는 라반을 아주 욕심 많고 고약한 사람 곧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놀부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7일 간격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그 한 딸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 일꾼으로 머물게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어째서 첫날밤에 신부가 바뀐 것을 몰랐을까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할 신부는 결혼식날 밤까지 덮개로 덮어서 가리워 놓았다. 그래서 밤에 신부가 조심하면 누군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같은 전광(電光)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장면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에게 단단히 타일러서 언니가 먼저 결혼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자매는 어쩌면 야곱을 함께 속이는 일에 의논을 맞추었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야곱은 속았다. 아마도 이때 야곱이 자기가 형을 속인 사실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녹았을 것이다. 그의 속임이 이렇게 빨리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레아는 암염소라는 뜻이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다. 어떤 신학

자들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설화(說話)로 다루려고 한다. 염소를 토렘으로 하는 레아 족속과 양을 토렘으로 하는 라헬 족속이 야곱 족속과 섞여서 한 족속으로 동화되는 사실을 이렇게 결혼 설화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럴 듯한 이야기이다.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기를 거절하는 소위 신학자들은 참으로 회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고고학의 노력으로 모두 신학자들의 허구인 것이 드러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된다. 돌들의 소리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한 남편을 맞이한 자매로서 남편을 잘 따랐던 것 같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사랑 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야곱에게는 자신을 속인 기념물 같은 아내가 레아였다.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가 속은 일과 또한 연상적(聯想的)으로 자기가 속인 일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라헬을 가까이 하고 레아를 멀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같지 않았다. 레아가 아들들을 낳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충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창 29:31).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과 다르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랑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의

하여 그들의 사랑이 견고하게 묶여진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연결하는 때가 된다. 결혼하는 것은 곧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상이 많이 퇴색하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의심이 가는 시대이다. 그래서 결혼은 뒤로 가고 동거가 유행하고 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겠다는 별망으로 치닫는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은 쾌락의 부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요 천덕꾸러기가 되어 사회의 커다란 짐으로 지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을 적게 받는 레아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다. 그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지극해도 자식 없는 아내로서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다.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아기를 낳게 하라고 졸라댔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은 역정을 낸다. “내가 하나님인가?” 생명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야곱의 사상을 보게되는 말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는 사람만이 생명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을 가진다. 생명경시 현상이 두드러진 세월 속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헬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자녀를 두어야 언니와의 경쟁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의 몸종 빌하를 자기 대신 남편 품에 들게 한다. 드디어 빌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빌하는 다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좋아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고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고 외쳤다. 레아는 자기에게 더 이상 태기가 없자 라헬의 본을 따라 자기의 몸중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대신에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다. 야곱은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낳았다. 이들 자매 아내들은 한 남편에게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다시 레아가 두 아들을 낳았다. 잇사갈과 스불론이다. 그 후에 라헬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모두 열두 명이 된 것이다. 이 자매들의 아들 낳기 경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아브라함, 이삭(이스마엘이 아니고), 야곱(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즐겨하신다. 바로 이런 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외아들을 주셨고(물론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여섯 아들이 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으나 장자권을 그토록 열망한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게 하신 것이다. 이 여자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경쟁을 할만하지 않은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의 정처(正

妻)로 인정하셨다. 라헬은 귀향하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러나 레아는 귀향하였고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묘실 막벨라 굴에 묻혔다. 사람의 대우보다 하나님의 대우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우물가의 로맨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어느 영화 제목이 말했던가?

성경의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동네 우물은 이야기의 산실이다. 아침과 저녁 아낙네들이 동이를 이고 모이는 장소요 물을 가르면서 쌀을 씻으면서 또는 빨래를 하면서 오가는 이야기에는 시집살이의 애환이 담기고 가정 대소사의 갖가지 에피소드가 꽃이 피며 좋은 소문 꺾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갓 시집온 새댁은 우물가에서 조심해야 했다.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소박맞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물가에서 마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듣기도 했다. 옛날 한국

의 우물가는 이렇게 아낙네들의 사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성경의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사교장이 아니라 남녀의 로맨스가 꽃피는 자리였다. 지난 호(號)에서 읽은 대로 야곱이 라헬을 만난 자리도 우물가였다. 거기서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은 당장 그를 위하여 혼신의 봉사를 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런 태도는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한 것을 드러낸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던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창 29:9-11)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고 일하라고 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고 대답했고 그 7년을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고로 수일처럼 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는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로맨스를 꽃피우게 되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랑을 평생 동안 지켰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기 훨씬 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보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마도 같은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난 것 같다. 그날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뉘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

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쟁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창 24:11-30).

이삭이 직접 선을 보러 간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우물가의 사랑 이야기는 또한 모세의 사랑 경험이기도 하다. 애굽 관리를 죽인 일이 탄로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에 그는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난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다. 물론 이때 모세가 십보라 한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다. 이드로의 일곱 딸들을 다 만난 것 같다. 그러나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면 모세가 십보라에게 연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미디안 40년 피난 생활을 아내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훈련되었던 것이다. 미디안 우물가에서 이루

어진 로맨스는 60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내는 대 역사의 전초였다.

물이 많이 솟아나는 우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샘을 파서 물을 얻으면 그것이 여간 큰 재산이 아니었다. 이삭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그랄 백성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탈취하려고 다투는 이야기를 읽었다. 이삭은 그들에게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터가 넓은 우물을 주신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것이야말로 이 거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늘의 식물(植物)이다. 갈무리를 여간 잘하지 않으면 고사(枯死)하고 만다. 요즘은 가짜 사랑 즉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횡행(橫行)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과 욕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제는 사랑이라고 죽고 못살 것처럼 뜨겁다가 오늘은 지겹고 싫증나는 것이 되어 이혼하자고 하니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이리하여 오늘의 사회는 이혼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화초를 가꾸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회귀종을 보면 그것을 구하려고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갈무리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았다. 한잔 화초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사람 사이에 영원한 행복을 꽃피울 사랑을 갈무리하는 일에 화초를 갈무리하는 것 보다 정성이 적어서야 말이 되는가? 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

물가의 사랑 이야기는 그 지방의 우물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알려진 것과 맞추어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뒤에 이 우물가의 사랑 이야기는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된다.

예수님은 그날 바쁘게 걸어가셨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분리된 자로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죄악시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지역으로 돌아갔다. 그 거리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의 세 배나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셨다. 급히 갈 일이 있기 때문이었을까?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으셔서 사마리아 수가 지방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는 정오가 되었다. 제자들은 시장하여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게실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나왔다. 이 얼마나 극적인 조우(遭遇)인가! 예수님은 그 외로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였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 게 물을 요청하는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외로운 여자에게 참된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9-14).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였다. 결국 이 여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다.

이 외롭고 불쌍한 여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여 물 길는 시간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 낮을 택하여 살그머니 우물에 나오는 여자, 자기의 부도덕한 생활로 인하여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여자는 물 길으러 나왔던 목적까지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던 자신이었던 것도 잊어버린 채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마을 사

람들은 강권하여 예수님을 그 마을에 이틀이나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예수님은 쾌히 승낙하고 거기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고 가려고 하신 것이 갈릴리에 갈 일이 급했던 것이 아님을 이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넉넉히 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자를 만나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려고 그렇게 급히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우물가의 로맨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야기기에 확실하지 않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경에 나타난 우물가의 로맨스는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서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예수님 그 분이 생수의 우물이다. 이 생수 곧 생명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만나고 하늘 가족으로 탄생하는 기쁨도 맛보게 된다. 예수님은 외치신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 38).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메마른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을 축축하게 적시는 넘쳐나는 사랑의 샘물이다. 그는 반석결코 물이 나올 수 없는 굳은 바위에 강수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야곱도 모세도 이삭도 이 우물가에서 사랑을 만났다. 그들이 사랑을 만나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

의 일꾼들이 되었다. 그 역사의 물줄기들이 흘러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물가의 로맨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출발지인 에덴에서부터 네 줄기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셨다. 강변은 언제나 풍요하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가 모두 큰 강변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것은 남상이 있다. 남상은 잔이 넘치듯이 조금씩 흘러나는 물의 근원을 뜻하는 말이다. 그것은 솟아나는 우물이다. 우물은 근원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풍요하게 하는 생명강의 근원이시다. 그 강은 세상을 풍요하게 하는 생명의 물줄기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늘의 참 사랑을 비로소 배우고 알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로맨스에 빠질 필요가 있다. 우물가의 로맨스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다.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영원한 샘물의 근원으로 오셨다.

그런데 세상에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데,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우물, 샘솟지 않는 우물을 파면서 갈증을 채 우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지적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성경의 우물가의 로맨스 이야기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들이다. 우리 모두 거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즐기지 않으려는가?

이스라엘

현재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세계의 화약고로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계의 상권(商權)을 유대인이 쥐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상류 사회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이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는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먼저 나온 아들을 에서라 이름짓고 나중 나온 아들을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이미 알고 있

는 이야기이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이야기도 읽었다. 야곱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나머지 6년 동안 샅을 받고 일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열 번이나 샅을 변경시키면서 야곱을 혹사했으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사 외삼촌 집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다.

원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뒤에서 붙들어 주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로 지었을 것이라고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그가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소서”라는 의미는 죽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만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것도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 길에 뻔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좋은 뜻을 이루어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꿈에 지시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의논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의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고향을 향하여 떠났다.

그가 떠나기는 했어도 불안을 없앨 수가 없었다. 몰래 도망하듯 떠났으니 외삼촌이 알면 어떻게 나올까? 또 고향집을 떠날 때, 형이 심히 분노하고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면 형이 어떤 태도로 나올까? 이런 일이 당장 눈앞에 근심거리였다.

과연 야곱의 염려대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이 지나

서 이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사병(私兵) 곧 일꾼들을 데리고 풍우같이 야곱의 뒤를 쫓았다. 야곱이 많은 가솔(家率)들과 우양(牛羊)들을 이끌고 갔으므로 그 걸음이 빠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가능한 한 더 멀리 도망가기를 바라고 강행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반이 7일 길을 추적하여 야곱 집단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길르앗 산이었다. 밧단아람 라반의 동네에서 길르앗 산까지는 298마일 곧 480km나 된다. 한국 이수로 1,200리이다.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히 도망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열흘 동안 그 많은 식구들과 일꾼들과 가축들을 끌고 하루에 120리 길을 도망한 것이다. 아마도 밤낮을 도와 도망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혼자 걸어도 쉽지 않은 하루 120리 길을 여러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갔겠는가? 야곱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을 짐작할 수 있다. 인생살이가 항상 정당하게만 되지는 않는 모습을 본다.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부정으로 취하지 않았는데도 외삼촌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부정 축재하는 것처럼 불평을 했다. 이런 소리에 귀가 얇아 라반은 야곱을 의심하는 눈으로 대하였다. 이런 낯을 알아차린 야곱이 외삼촌 집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의 재산이나 식구들까지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추방당할 것같이 느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실속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몰래 도망하는 사람처럼 도망쳐 온 것이다. 부지런히 1200리 길을 열흘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라반은 7일 동안 추적하였다. 480km를 7일에 달리려면 하루

에 70km 곧 170리 이상을 달려야 한다. 이 것은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분노를 짐작케 한다. 드디어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길르앗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낼 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현몽(現夢)하셨다. 야곱에게 가부간에 다투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반은 하나님의 현몽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 외롭게 자기 집에 와서 20년을 부지런한 일꾼으로 지낸 생일이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밤에 분명히 깨달았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에 야곱에게 따졌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창 31:26-30).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의 신을도적 하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정당히 자기 소유가 된 것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몰랐다. 드라빔이란 사람의 모양을 만든 작은 우상인데 조상의 재물을 상속(相續)받게 하는 신으로 여긴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집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그 집 재산이 자기에게로 온다고 믿었던 것 같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데는 복합적 심리가 있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 일에 대한 불만과, 또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등등. 그래서 드라빔을 가져가므로 아버지의 재산이라도 자기 집에 오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라헬은 당시 그 지방의 미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훔쳤는지 발견이 되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라헬은 말안장 밑에 훔친 드라빔을 감추고 그 위에 올라앉았다. 아버지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안장에 앉은 체로 아버지를 맞으며 ‘용서하세요, 마침 경수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라고 애교 있게 종알거렸다. 라반은 딸이 앉은 안장을 뒤지지 못하였고 라헬이나 야곱은 위기를 면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집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이십 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

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 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번역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 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창 31:36-42). 야곱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시비를 따진 후에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피차 헤어졌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그들이 무단 월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표를 삼았다. 허락 없이 이 돌무더기를 넘으면 그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하였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아람 말이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유일한 아람어이다. 야곱은 이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같은 뜻의 히브리어이다.

야곱은 외삼촌의 추격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가게 되었으나, 형 에서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먼저 사자를 보내면서,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창 32:4, 5)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사자의 보고는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라반을 피했다 싶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옛 원한을 잊지 않고 복수하러 오는 형을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곱의 마음은 녹는 듯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선물로 보내면서 형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계획했다. 그는 자기의 가축 중에서 양, 소, 약대, 나귀, 등을 각각 떼로 나누어 에서에게 보내면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창 32:18) 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렇게 예물로 형의 노여움을 풀 다음에 만나면 형이 용서할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도 형이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다. 하나를 치면 하나는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 모든 사람들을 앞서 압복 나루를 건너 가게 한 후 자기는 남아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잡는 것이 아닌가. 야곱은 즉시 그것이 원수 에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여 버티며 싸움을 계속하였다. 피차 아무 말 없이 씨름 같은 싸움은 계속되었다. 날이 새려고 할 무렵에 그 침입자는 비로소 말을 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

게 하라”(창 32:26). 이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그가 원수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찌면 그 음성이 옛날 뵈엘 들판 꿈에 사다리 위에서 자기에게 말했던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대답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야곱의 이 간청은 들으신 바 되었다. 그 언약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6-28). 이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창 32:29-30).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겨루기라도 하겠는가?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곧 “속이는 자”라

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하여 겨루는 생활을 표상 하는 이름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할 때 그는 하나님과 겨루는 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자리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다(출 33:20).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두 장면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심성에 투영되어도 그는 영광에 이르고 감사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고 약속하셨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다.

그는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없이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고대 민족적 이스라엘은 조상 야곱의 바뀐 이름을 따라 그렇게 부르지만 신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날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그赫赫한 영광이 죄를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얼마나 굉장한 이름인가! 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다. 그 동안 외사촌 여동생들과 결혼을 했고, 언니가 아들을 네 명이나 낳을 동안 한 아들도 낳지 못한 동생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여 자기의 수치를 면하려고 했다. 빌하가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언니 레아도 질세라 지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거기서도 두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더 낳았으며, 맨 나중으로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고명딸 디나가 레아에게서 태어났다.

이 열두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조상들이다. 그들은 자라나면서 그 성품이 다양하였다. 배다른 열 두 형제가 한 집에서 자라는 동안 집안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렇거든 기원전 1700년대인 야곱이 생존했을 시대야 모두가 유목민이 아니었겠는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이었다.

맏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는 레아에게서 연달아 났다. 연년생이 었는지도 모른다. 맏아들 이름은 르우벤이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이다. 레아는 원래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자가 아니다.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하였고 그녀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였으나 외삼촌의 농간에 의하여 레아를 아내로 맞은 것이다. 그래서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이 아쉬웠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낳았으니 동생인 라헬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남편 야곱에게 얼마나 떳떳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창 29:32)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동생에게 과시하는 이름이다. 레아의 이런 독백에 미루어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짐작할만하지 않은가?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사실을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쓸쓸함을 아들을 낳는 일로 위로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셋째 아들을 낳았다. 레위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는 그 뜻이 “연합하다”이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하였다. 남편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이 그림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신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하였다. 그 뜻은 “찬송하다”이다.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라헬은 언니가 연달아 네 아들을 낳도록 자신은 한 아들도 낳지 못하여 이만저만 낭패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남편에게 자기도 아들을 낳게 하라고 졸랐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말한다고 라헬을 책망하였다. 아무리 애써도 인간 스스로는 한 생명도 태어나게 하지 못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생명이 태어난다.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꿀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생명이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교훈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나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제는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아

무리 복제를 한다고 해도 원본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원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최초로 양을 복제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이언 월머트 박사는 인간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주 브루클린의 한 메디컬 센터에서 강연하면서 “인간은 생물학을 초월한 어떤 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제를 해도 유전적으로 똑같은 수 없다”고 말했다. “생물학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이 과학자는 느낀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곱은 일찍 이 사실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런 것은 당시 사회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풍습이 당시 사회에 법률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누지에 서 발굴된 점토판에서 확인되었고 함무라비 법전 145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몸종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아야 했다. 라헬은 이 법의 시행을 남편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빌하는 야곱에게서 “단”을 낳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풀어주심”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아들을 못 낳았으나 자신의 몸종이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 못 낳는 억울함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아쉬운 호소였다. 빌하는 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형과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경쟁함”이라는 뜻이다. 사실 라헬이 이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설움을 이런 이름들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여섯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

동생 라헬이 몸종을 시켜 아들을 낳는 것을 본 언니 레아는 심술이 났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졸랐다. 자기의 몸종에게서도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다. 레아의 이 요구는 법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이다. 그녀는 아들이 넷이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인간의 질투가 풍속을 어기고 남편에게 강요했다. 야곱은 염복이 많은 남자인가? 실바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갓과 아셀이다. 갓은 “복되다”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들에서 라헬과 레아의 성품의 면모를 엿볼 수 있지 않는가?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부드럽고 화평하다. 그러나 라헬이 지은 이름들은 공격적이고 항의의 조이다. 라헬이 인물이 빼어나고 특히 안광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 성경은 레아의 안력(眼力)이 부족하다 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아름다운 여자였던 만큼 투정도 많았던 것 같다. 어찌면 라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야곱의 정치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비록 그 아버지 라반의 농간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의 정치로서의 자격을 구비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었을까?

라헬은 르우벤이 얻어온 합환채를 얻는 대신 남편을 언니 방에 보냈다.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 두 아들을 더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 난 것이다. 레아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잇사갈”과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그 “잇사갈”의

뜻은 “값”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값을 주셨다는 것이다.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풀로서 복용하면 임신하게 하는 약효가 있다는 약초이다. 만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그 영험이 있는 풀을 얻어온 것이다. 라헬은 그 풀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합환채를 자기에게 주기를 요청하고 남편을 얻니 레아의 방으로 보냈던 것이다. 그 남편이 분명 언니의 남편인데 마치 자기만의 남편인양 행세하는 라헬의 자세도 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환채를 먹은 라헬이 아니라 그것을 동생에게 준 레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잇사갈이라 이름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값이라는 감사의 이름이다.

“스블론”은 “거함”이라는 뜻이다. 이제야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라는 소망의 이름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 대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헬은 무척 속이 쓰라렸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합환채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고 깨닫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라헬을 권고하셨다. 드디어 그녀는 열 아들이 부럽지 않은 그녀의 첫 아들을 낳았다. 요셉이라 이름하였다. “하나님이 이 아들 외에 또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름이다. 과연 하나님은 한 아들을 더 주셨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낳았는데 난산이 되었다. 라헬은 그녀의 막내아들이요 야곱의 막내아들을 낳고 난산으로 나그네길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는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다. 그녀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난산의 신고(辛苦) 중에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하고 죽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아비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야곱은 열 두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졌다.

이런 출생의 과정을 가진 아들들이니 그 개성들이 뚜렷했을 것이고 각각 자기 어머니와 더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니 서로간에 암투도 있었을 것이다. 한 남편을 둔 네 어머니들의 삶의 모양들이 아들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탈이 여기 저기 기록되어 있다. 맏아들 르우벤은 그의 서모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간하였다. 남자를 안 여인은 남자가 그리울 것이다. 야곱이 두 본 부인과 두 첩을 거느리고 있으니 어찌 여인들이 만족할 만큼 그녀들의 방을 찾았겠는가? 더구나 라헬을 연애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사람이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가장 가까이 했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들 중에 빌하가 장성한 아들 르우벤을 유혹을 했는지 아니면 르우벤이 서모를 유혹했는지, 하여튼 불륜이 저지러진 것이다. 야곱은 그 일에 대하여 가부간에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임종에 임하여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 사건을 언급한다. 그래서 그의 성격이 끓는 물 같다고 말하고 장자권을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 넘긴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과격하여 세겜에서 그들의 누이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것을 기화로 못된 계교로 복수를 하여 세겜 족

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그리고 임종시에 축복할 때 이 사실을 반영시킨다. 창세기 49장은 열두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는 입으로 한 축복이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것이 누지 발 굴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면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였다.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축복이라.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들의 미래 생활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말로 축복하였다.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 같은 것도 있다. 르우벤에 대하여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장래를 보여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축복과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밀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진로를 고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한다. 레위에 대하여 복을 빈 내용은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창 49:7)고 말했다. 말 중에도 저주라는 말이 나오지만 내용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이런 사실을 레위가 잘 깨닫고 그의 삶의 모습을 고쳤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 레위에게 한 복 비는 말의 내용과 뒷날 레위 지파의 지위를 보면 이 예언적 복 빚의

뜻이 분명해진다.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사 46:10) 그들이 현재의 상태로 살 때에 전개될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므로 회개하고 고쳐서 미래가 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언들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약에 기록된 어떤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하여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적 예언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멸망이나 형벌에 대한 예언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의 그들이 나타내는 생활과 성품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권고인줄 알 때에 이 문제로 시시비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말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 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 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겔 33:12-16). 예언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언적 복 뱃의 진실이다.

유다에게 대하여 실로 곧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요셉이 창성할 것을 예언한다. 아들들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보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복 빌기를 마치고 죽었다. 이 아들들은 마침내 지상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복의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마침내 망하고 흩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상 하는 말이 되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歷史)를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사랑의 섭리였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셉의 환난

성경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그 중에도 사람의 이름을 붙인 환난이 두어 번 있다. 하나는 야곱의 환난이다(렘 30:7). 다른 하나는 요셉의 환난(암 6:6)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나누어진 다음 북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여 북방 왕국 이스라엘이 당할 국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로서 이스라엘 국가 중흥의 시기였다. 나라는 옛날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회복하였고 경제는 부흥하였다. 나라는 태평하

였다. 이런 경우 자연적으로 인간의 사치와 방탕이 고개를 쳐든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그들의 사치 생활에 거치적거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이 속히 지나가고 장사할 시간을 기다리며(암 8:4) 예배와 경건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다. 그렇다 보니 방탕과 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장사에는 속이는 저울과 빈익빈 부익부로 부자들의 횡포가 심했다. 신 한 켄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암 2:6). 그들은 흥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암 6:3-6). 성 도덕도 형편없었다. 부자(父子)가 한 여인에게 드나들었다(암 2:7).

이런 방탕과 사치의 삶은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였으나 그들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 머지않아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수도는 불탈 것이고 백성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라의 안전과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없었다. 이것을 아모스는 요셉의 환난이라고 표현한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의 이런 꼴이 이미 큰 환난이 아닌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오늘날 한국의 상태와 너무 흡사하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일천 만을 헤아리지만 사회 도덕과 정의는 시궁창이 되어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사회를 휩쓸고 있지 않는가. 아모스 때의 이스라엘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

다. 정치와 경제는 무사 안일주의로 치닫고 사치하고 방탕하다. 졸부(猝富) 현상은 돈을 우습게 아는 풍조를 만들었고 외국으로 드나들면서 물 쓰듯 돈을 써댄다. 청소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부모가, 교사가, 사회와 교육이 이들을 바르게 돌볼 수 없는 지경으로 넘어갔다.

요셉의 환난, 옛 이스라엘 왕국에 닥칠 환난을 요셉의 환난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모스 당시에 사정이지만,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면 요셉 개인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다. 그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다. 그는 형제들에게 환난을 당한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부잣집 귀공자가 하루 저녁에 노예가 되었다. 엄청난 환난이다. 그것도 형들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 그 후로도 그에게는 환난이 끊이지 않았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주인에게 사랑을 입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는 준수한 청년이었다. 준수한 노예 청년에게 반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단연코 그 유혹을 물리쳤다. 그러나 그 허물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넣게 했다. 요셉의 환난의 면모들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가 부잣집 귀공자로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실은 예수께서 하늘의 왕자로 계시다가 죄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에 견주어 말한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감히 요셉의 환난으로 어떻게 비교하겠는가마는 성

경 인물들 중에 그 겪은 경험으로 말할 때 요셉의 환난으로 건주는 것이다. 요셉의 노예의 값으로 팔려갔다. 은 20이다. 아마 당시 노예 한 남자의 값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다. 당시 노예 한 남자의 값이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이다. 성경은 이 애굽을 죄의 세상의 표상으로 적고 있다(계 11:8). 요셉은 후일에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한다(창 45:5). 이것은 예수께서 이 죄의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표상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요 1:11).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요셉은 형제에게 팔려가고 무고로 감옥 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창 45:8). 아버라는 말은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권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젊은이들에게 있는 유혹의 환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젊었을 때에는 정력이 왕성할 때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은 유혹이 있을 때에 요셉처럼 확고하게 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

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창 39:7-10). 이 기록에 보면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대었다. 그는 한날 노예였다. 주인 부인의 유혹은 달콤한 것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만일 그랬다면 그가 우선은 그 집안에서 영화(?)를 누렸을는지도 모른다. 노예의 신분인 그가, 여주인이 날마다 그에게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혈기 왕성할 때 여인의 유혹을 말이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임하는 가장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요 환난이다. 요셉의 환난은 청년들이 당하는 환난의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성 개방 시대라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면 요셉이 바보 멍텅구리라고 비웃지 않을까? 요즘은 순결이 부담스러운 시대라고 한다. 이성간의 성의 벽은 속히 허물수록 영웅처럼 여겨지는 불륜의 세계이다. 세계의 선도 국가로 자처하는 대 미국의 대통령이 날마다 섹스 추문으로 신문을 장식하는 세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대통령에 대하여 그것은 사생활인데 국정을 수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야단인가 하는 국민들의 무감각한 반응이다. 인간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추락한 것 같다. 어찌면 옛날에

도 그랬는지 모른다. 그것이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을는지 모른다. 역사는 정치가들과 군왕들의 섹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어떤 작가의 말대로 섹스는 인간에게 끝없는 갈증인지? 이 시대의 성 도덕은 부도덕을 미화시키고 반도덕이 도덕이 된 것 같다. 출판물들은 이것을 열심히 부추기고 있다. 소설들은 그 부도덕한 행태를 감미롭고 아름답게 묘사하기를 마지않는다. 요셉의 환난이 노아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종교와 도덕이 완전히 그 감화의 힘을 잃고 날개를 접고 앉은 시대이다. 아니 소위 종교인들까지도 불감증에 걸려 같이 춤추고 있는 시대이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사람들이 없는 시대. 시류를 좇아 걸어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시대. 분명 요셉의 환난 시대이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 환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사회와 가정이 속수무책이다. 인터넷을 타고 안방까지 침입하는 널름거리는 유혹의 혀를 막을 도리가 없는 시대이다.

한 사람을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가정 교육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는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는 동네 분위기였다. 가정 교육은 곧 동네 교육이었고 그것이 또한 사회 교육이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을 잘 시키면 그런 대로 쓸만한 인격을 형성했다.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잘못하면 동네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 마을이 자녀들을 사람답게 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분위기가 없다.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좁아져서 가정 분위기가 마을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사회 분위기가 되는 시대는 멀리 지나가 버린 것이다. 가정 교육이 사회의 교육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이다.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서 있는 시간이 더 긴 시대이다. 집에 있어도 부모에게 교훈을 듣는 시간은 없고 TV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시대이다.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계를 드나드는 시대이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한꺼번에 집안으로 밀려오고 아이들의 머리 속으로 밀려오는 시대이다. 처리하지 못하는 풍조의 홍수가 우리의 젊은 요셉들을 휩쓸어가고 있다. 참으로 요셉의 환란의 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고 권고하셨다(신 7:26). 그러나 오늘날은 가증한 것이 집에 드나드는 일에 무방비 시대이다. 세기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기말에 처하여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요셉처럼 정의와 올바른 도덕관에 굳게 서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교육이 감당하지 못한다. 피상적인 종교도 감당하지 못한다. 한국에는 천백 만을 헤아린다면 기독교 교인들이 30% 이상 줄어서 그렇게 큰 덩어리로 지어놓은 교회당이 짐스러운 시대가 되어간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사회 풍조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아니 기독교 자체가 사회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요셉들을 붙들기 위하여 철저한 신앙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영합해 간다. 이제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참으로 요셉의 환란의 시대이다. 환란이 투옥과 체형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환란 그것이다. 진리와 의를 위하여 단호히 서지 못하게 하는 환란,

모든 죄악스러운 것을 미화시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환난, 순결과 순수와 도덕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환난, 그래서 요셉처럼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 없어진 환난, 환난의 시대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환난의 연속이었으나 그 환난은 그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목이었을 뿐이다. 오늘 이 시대의 이런 환난의 모습은 인류의 소망이시며 모든 문제의 확실한 해결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난의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세의 형편을 마치 현장에서 본 것 같은 필치로 그리고 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요셉같이 설 자가 누구인가? 이 환난을 영광의 결과에 이르도록 굳게 설 자가 누구인가?

머지 않아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요셉처럼 환난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만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환난의 시대를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다의 자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그는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앞장 선 형이다. 그로서는 이유가 있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죽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것은 형제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 형제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였다. 결과로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므로 어릴적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요셉을 파는 사건 후에 유다의 이야기를 따로 쓰고 있다.

그이 결혼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의 간단한 삽화처럼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의 견해로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돔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간 때가 약 21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판 것이 마음에 걸려 있고, 혹시 공모했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을 고자질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그들 사이에 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런 긴장을 해소하고 비밀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헤어져서 딴 살림을 살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형제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유다의 행장에 미루어 다른 형제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동족에게 장가들게 하기 위하여 그 종을 하란까지 보내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던 시절이다(창 15:16 참고). 주석가들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맞은 사실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타락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 이삭은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므로 이삭도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할례를 했을 것이다. 야곱이 하란 외삼촌 집에서 돌아 올 때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에 할례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아 그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형성된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장가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보내면서 형성되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방 결혼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근친 결혼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 상대가 그 민족 사이에 넉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동생과 결혼했다. 이삭은 조카와 결혼했고 야곱은 외사촌과 결혼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나, 셋은 그들의 누이들과 결혼했을 것이다. 아직도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그 후에 주신 법도에 의하여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히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할례를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돈으로 산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았다(창 17:12).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자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실에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맏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의 행실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감화에 깊이 젖은 것을 볼 수 있다. 유다가 그의 가나안 사람 아내가 죽은 후에 저지른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된 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유다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히 들어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유다와 수아의 딸 사이에서 첫 아들 엘과 다음으로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다말의 신분이나 족속에 대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도 필시 가나안 족속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야곱 족속은 한 민족으로 변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 이름을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도록 지었다.

“엘”은 “경계하는 자”라는 뜻이며, “오난”은 “힘”이라는 뜻이며, “셀라”는 “평화” 또는 “기도”라는 뜻이다. 엘은 이방의 풍속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이름이요, 오난은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있기를 바라는 이름이다. 이런 이름은 셀라 곧 평화와 기도라는 이름에서 종합적으로 유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걸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는 이방 풍속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계하였다. 그의 악행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말씀에 의하여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악행을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병을 얻었고 일찍 죽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죽이

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38:7). 이 말은 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행한 결과로 죽었다는 말이다.

오난은 계대(繼代) 결혼(結婚)을 싫어하였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에게 장가들어 그 첫 아들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당시의 실정법(實定法)으로 가문을 이어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배려에서 나온 법이었던 것 같고, 또 신령한 표상으로는 죽지 않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제도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 제도를 법률로 주셨다(신 25:5-10). 그 목적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오난은 이것을 거절했다. 오난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형수에게 들어갔으나 그는 설정(泄精)하였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신성한 의무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거부한 것이다. 그것이 또한 여호와 앞에 악한 일였다. 생명을 경히 여기고 영생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위대하다 해도 이 생명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멸하는 일이므로 악한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 16:9)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유다는 아들들이 연달아 죽자 두려워서 다말에게 친절에 가 있으

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막내아들 셀라가 또 죽을까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게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말의 처지에서는 유다의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시는 유다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을 염려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유다의 본심을 안 후에 다말은 자기대로의 비상수단을 강구하였다.

창 38장은 유다가 그의 아내가 죽고 애통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딘나로 갔다고 했다. 양털을 깎는 때는 목축업자들의 추수기와 같아서 축제의 때가 되었다. 아마도 유다는 즐거운 기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술기운에 편승하여 적적함을 달래려고 여자를 찾았는지 모른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딘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창녀로 위장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였다. 유다는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갔으며, 다말은 유다와 동침하고 화대(花代)의 약속물로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을 받아 두었다. 그는 뒷날 곤란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수절하라는 부탁을 받고 친정에 내려온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이 들리면 불사르는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당시 법이었다. 유다는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친구 히라에게 보내어 창녀를 찾아 건네주고 약조물로 준 것을 찾게 하였으나 히라가 어찌 다말을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 마을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대답이었다. 유다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하였다. 그러나 다말은 시아버지로 인하여 임신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다말을 불사르라고 명했다. 다말은 끌려

가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어 이 물건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유다의 낭패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유다는 며느리의 실행(失行)이 자기 탓이라고 자인하였다. 당시의 법을 따라 계대 결혼하는 일을 그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그는 형벌 하는 일을 중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일로 다말을 아내로 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다. 해산 할 때에 한 아이의 팔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난산이 된다. 산파는 먼저 나온 팔에 붉은 실을 매었다. 그런데 그 팔이 도로 들어가더니 붉은 실을 매지 않은 아이가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다. 그 뜻은 “터Em리다”이다. 붉은 실을 맨 아이를 밀치고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다. 붉은 실을 맨 아이는 세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르다” 또는 “광휘(光輝)”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들의 삶의 여러 면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설명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윤리적으로 추잡한 일이다. 비록 그것이 속임수로 된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모양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의 죄 된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셨다. 형벌 대신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섭리해주셨고,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적 선후가 반드시 실제적 선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시간적 질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영원의 질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였다. 그러나 그가 시간적으로 먼저 세상에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 아담 예수에 의하여 인류는 존재하게 되었다. 나중 나올 것 같았던 베레스가 먼저 나왔고 유다의 적자(嫡子)로서 족보에 올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므로 가정에 파란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속의 섭리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사건이 끼어 든 것은 요셉의 사건과 유다의 사건이 구속사적(救贖史)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총리가 되고 야곱의 후손을 보존하여 메시아가 세상에 올 수 있는 예언적 혈통을 보존하게 된 것과, 유다가 자식들의 계대 결혼의 실패로 메시아의 예언적 혈통에 위기가 왔을 때에,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메시아의 예언적 혈통을 잇게 된 것은 구속사적 연관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단은 유다의 후손을 끊어려 했다. 엘리나 오난의 악이 사단의 감화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유다의 셋째 아들 세라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로 불리신 다

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예언적 혈통은 끊어지고 사단은 자기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부도덕의 소치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선용하신 은혜와 자비를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성경의 사람들의 행적들에는 아직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많이 숨어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영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 유다의 이야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훗날 이야기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과 바세바와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일들을 육체대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요 8:27).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 판단으로 판단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인간의 비리까지라도 영원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유다의 변신

유다의 변신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지난 회에서 유다의 자녀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 전에는 요셉의 환난 이야기를 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기로 했다. 유다는 요셉을 죽는데서 건져내는 일을 한 셈이지만 그 의도는 요셉의 생명을 건지려는 것보다는 요셉을 죽여봤자 동생을 없애는 것밖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팔면 동생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유다의 수치 계산에 의하여 요셉을 팔게 되었으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하여 남은 자가 있도록 하는 일이 되었다. 사람은 때때로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선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리라.

웃음소리 이야기에 어떤 해수욕장에서 한 아이가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데 해수욕객들이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그 때 한 소년이 기를 쓰고 뛰어들어가서 파도에 휘말린 아이를 죽을힘을 다해 끌어내어왔단다. 주위의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열적은 모습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애, 너는 어떻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구할 생각을 했니? 참 기특하구나!”

그 소년은 수줍은 태도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 아이의 수영복이 우리 형 꺼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는 대답이었다.

그 소년은 아이를 살리려는 생각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형 몰래 빌려준 자기 형의 수영복을 잃어버렸을 때, 형에게 야단 맞을 일이 두려워서 기를 쓰고 그 아이를 끌어낸 것이었다. 동기야 어떠했든지 아이를 구해냈으니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가! 유다가 요셉을 죽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말이다. 유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열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다.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다. 그러나 어찌 그 총리가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생각했겠는가? 그들은 절을 하고 양식 구하러 온 사연을 말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임을 당장 알아보고 그들을 시험하였다. 자기와 한배 형제인 베냐민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자기를 미워했던 같은 심보로 동생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는 그들을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고 감옥에 가두어 사흘을 두었다가 석방하여 양식을 주어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에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담보로 한 사람을 인질로 두고 가라고 한다. 선택된 사람이 둘째 시므온이었다. 시므온은 요셉을 팔 때에 가장 강하게 요셉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둔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셉에게 지은 죄 값을 받는다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시므온을 잡아넣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빌미가 되기도 하였으리라. 그들이 도중에 여관에서 그들의 자루에 돈이 든 것을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아무튼 그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섰고 요셉은 그 돈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경위를 설명하였다 시므온이 오지 못한 이유를 아버지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야곱은 놀랐고 아들들을 원망하였다. 어찌 요셉을 잃게 하고 또 시므온을 잃고 이제는 베냐민을 잃게 하려느냐? 르우벤은 이 때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차라리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야곱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야곱의 손자들이다. 어찌 아들을 위하여 손자를 죽인다는 말인가? 아마도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말을 위로의 말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가지고 간 양식은 기근 기간을 다 지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야곱은 베냐민의 일 때문에 양식이 급해도 아들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먹어야 했다. 이태가 지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보내면서 베냐민을 동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아이의 안전을 계속 염려하였다. 야곱은 유예미결하고 있었다.

그 때 유다가 나섰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창 43:8, 9).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주장했던 과거를 생각했을까? 야곱이 충애를 하고 있는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담보로 내

어놓겠다고 말했다. 몸을 담보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담보하셨다. 곧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다. 물론 유다의 이 마음에는 아버지를 위한 효성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찌면 그가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부정(父情)을 깊이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유다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변신한 것이다. 세월의 풍상이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하게도 하고 모질게 변화하게도 한다. 유다는 아름답게 변신하였다. 그의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 말하도록 변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한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극심한 기근을 살아갈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낸 것인지 모르지만, 유다의 주장은 아버지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야곱이 유다의 말을 신성한 것을 보면 그간의 유다의 삶이 아버지의 신임을 얻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유다는 애굽에 가서 베냐민이 애굽 관리에게 잡혀서 총리 공판으로 끌려갔을 때에 아버지에게 한 약속대로 베냐민을 위하여 변명한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와 같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사람

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창 44:23-34).

요셉은 유다의 탄원과 그 형제들의 태도에서 이복 동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에 대한 참된 효를 보았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울면서 자기의 정체체를 밝히고 오랫동안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되었다. 물론 형제들은 처음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진심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태도와 대접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진 것이다.

이 때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처음은 얼마나 놀랐을까! 다음으로 그는 곰곰이 일의 추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의 계획과 하

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판 것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될 줄을 그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은혜로 바꾸셨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의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이 일은 범죄하여 죄의 세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시한적 삶을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표상이다. 아담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 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보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유다의 변신을 귀하게 보셨다. 야곱은 임종에 임하여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모았다.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야곱에게 임하시고 아들들의 미래를 보여주

섰다. 그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아들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에게 와서 그는 그 후손으로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8-10).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왕권이 유다 자손에게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왕권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실로는 평화를 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사 9:6).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라고 성경은 말한다(계 5:5).

유다는 그의 변신을 통하여 메시야의 예언적 조상이 되었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다. 한때 동생을 팔아서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생활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형제를 위하여 몸을 담보하려는 정신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의 예언적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야곱은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한 사실을 귀하고 고맙게 여긴 것이 확실하고, 유다의 결혼과 자녀들이 부덕과, 또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고 실로가 그의 가게를 통하여 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

헤로우시다. 유다의 후손은 다윗 왕가를 이루었고, 마침내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셨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므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생명이 드러내는 생활을 이룰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보좌에 앉는 왕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인 어린양이 벌써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아도 언제나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케루빔 총서 제9권
성경의 사람 이야기

저 자: 김 명 호
발행인: 남 대 극
발 행: 케 루 빔

1999년 10월 25일 인쇄
1999년 10월 30일 발행

케루빔

139-74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구내

Tel: (02) 3399-3060

Fax: (02) 3399-3073

Email: dnam@syu.ac.kr

값 5,000 원

하나님께서서는 지구상의 사람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때로는 긍정적 측면으로, 때로는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낸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범죄의 이야기와 속죄의 이야기,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내용들이며, 성경에 선별되어 기록된 이런 삶의 현실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상의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다.